#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99 1982년 12월 7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uesday, December 7, 1982


DEC 7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 제2회 한인합창단 메씨홀 공연

# 메시야연주 질적성장

## 토론토의 소프라노 이주연씨 열창

한인합창단의 메시아 대공연은 기독교인에게는 구세주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일반 청중들에게는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는듯한 충만하고 흐뭇한 하룻저녁을 안겨주었다.

4일밤 겨울날씨답지 않게 부슬부슬 내리는 비에도 불구하고 2,700여석의 메씨홀은 거의 메워졌고 비한국인 청중들의 수도 지난 해의 공연때보다 많았다.

30여명의 디트로이트합창단원들의 협찬을 받은 80여명의 한인합창단은 작년 공연때보다 안정되고 자신있는 연주를 보였고 청중들의 태도도 지난해에 비해 차분했다.

지휘자 박재훈씨가 이끄는 한인합창단의 이날밤 공연은 에트닉이자 아마추어 연주단체로서 캐네디언 음악사회의 주류에 발을 내딛기 시작했다는데서 의의가 컸다.

이날 정각 8시 흰블라우스·검은 치마차림의 여성단원들이 검은 나비넥타이·흰셔츠·검정양복차림의 남성합창단원들을 가운데로 하고 무대 뒤쪽 합창단석에 자리를 잡았다.

무대 전면에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영대씨를 악장으로 한 오케스트라단원들과 독창자들이 자리를 정했고 지휘자의 지휘봉이 힘찬 첫 선을 내려긋자 오케스트라가 서곡 신포니아를 연주하기 시작함으로써 제1부 예언·탄생, 제2부 수난·속죄, 제3부 부활·영생의 총 43곡의 대연주가 시작되었다.

이날 연주의 독창자는 소프라노 이주연씨, 메조·소프라노 양경자씨, 테너 조영호씨, 바리톤 신경욱씨.

테너의 서창 〈내 백성을 위로하라〉가 끝나자 일부 박수소리가 났다.

합창단의 첫 곡 〈주의 영광〉이 끝나자 연주시작전까지 입장못한 관객들이 우르르 착석하는 소리와 터져나온 박수소리가 어울려 잠시 분위기가 흐트러지자 작년에도 청중의 박수소리에 예민한 반응을 보인 지휘자 때문에 일부 청중들은 약간 초조해지기도 했다.

여섯째곡으로 베이스의 영창 〈주 오시는 날 누가 능히 당하리〉가 끝나고 또 박수가 들리자 지휘자는 드디어 지휘봉을 청중석으로 돌리어 박수를 치지 말아달라는 싸인을 주었다.

서서히 무르익기 시작한 연주는 〈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합창 〈우리를 위해 나셨다〉에서 돋보였고, 특히 소프라노 이주연씨의 영창은 밤하늘의 별처럼 선명하고 아름다왔다.

1부 끝곡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벼워〉가 끝나자 청중들의 박수가 물밀듯이 터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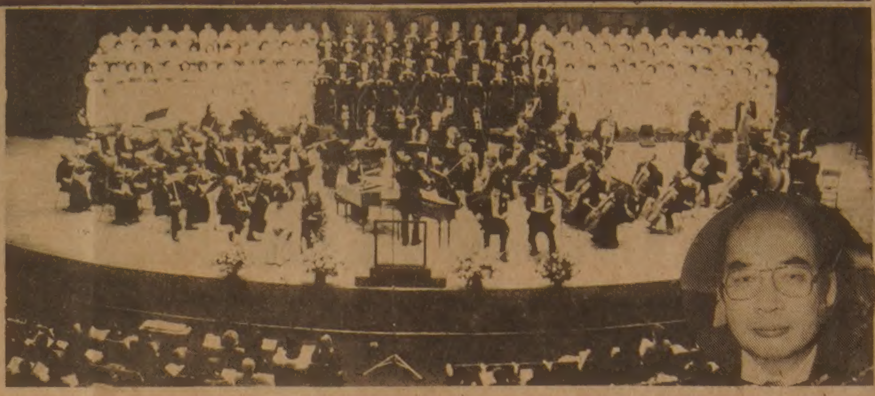
휴식시간에 이어진 제2부의 마지막곡 〈할렐루야〉는 웅장하고 아름다왔다. 드럼과 트럼페트까지 동원된 할렐루야는 청중이 전원기립한 메씨홀을 사로잡았고, 마지막 할렐루야—가 끝나자 옆의 한 캐네디언 청중은 "Oh, It's beautiful,"하고 감탄을 발했다.

합창 〈죽임당하신 어린양, 아멘〉으로 제3부가 끝나자 우뢰같은 박수와 함께 하나 둘 일어서던 청중들은 마침내 전원 기립했다.

재등장한 지휘자와 독창자들에게 각계교민들과 어린이들의 꽃다발 증정이 있었다. 박수가 끝나고 오케스트라가 퇴장한 뒤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던 합창단은 잠시후 다시 등장한 지휘자에게 환호와 박수로서 노고를 치하했고, 지휘자는 또 단원들에 영광을 돌리었다.

최근 온태리오·아츠·카운슬로 부터 2천달러의 지원금을 배당받은 한인합창단은 제3회 메시아 대연주회를 내년 12월9일(금) 저녁 8시 토이·톰슨·홀에서 가질 예정이다.

79년 9월 박재훈박사의 주도아래 창단된 한인합창단은 이후 수차례의 자선음악회, 가족음악회를 비롯, 〈천지창조〉등을 공연했으며, 80년 7월 온타리오 주정부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했다.


◆〈메시야〉 공연중인 한인합창단. 이 사진은 81년도 제1회 공연때의 모습이다. 원내는 지휘자 박재훈씨

작년 12월4일 제6회 정기연주회를 메씨홀에서 가짐으로써 장족의 발족을 보였다. 작년 〈메시야〉 공연의 독창자는 이정애, 배정숙, 옥인걸, 신경욱이었고, 반주는 노스·욕 심포니, 하프시코드및 올갠은 유회자 박사가 맡았었다. 전

특히 지휘자의 깊은 신앙심에서 우러나온 지도력은 전 단원을 이끌어가는 정신적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것이 단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현재 단원은 82명, 단장 문남귀씨, 총무 이건길씨이다.

(안병원씨의 메시아 연주평은 제2면에)

### ●헨델의 메시아는?

메시아는 바하이전 서양음악의 거성 헨델이 24일에 걸쳐 작곡한 종교음악으로 1741년 더블린에서 작곡자 자신의 지휘로 초연된뒤 거의 250년이 지난 지금도 전세계에서 매년 성탄시즌이면 널리 연주된다.

특히 제2부의 끝곡 〈할렐루야〉 연주때 청중이 일어서는 이유는 영국황제 조지 2세가 할렐루야 코러스가 연주되었을 때 감격을 이기지 못해 작곡가에서 경의를 표하기 위해 일어선 것이 유래가 되었다.

### ●지휘자 박재훈씨

최근 목사로 안수받은 지휘자 박재훈씨는 1922년 강원도 태생으로 49년 중앙신학교를 졸업한 뒤 59년 도미, 웨스트·민스터 콰이어 칼리지를 졸업했다.

한국 영락교회 지휘자, 선명회 어린이합창단 지휘자를 거친 그는 한양대, 중앙신학원, 서울음대등에서 가르쳤고, 78년 여주 연합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봉직해온 작곡가겸 연주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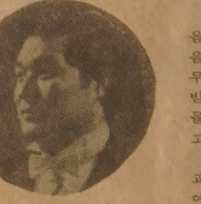
◆소프라노 이주연씨

### ●소프라노 이주연씨

최근 토론토대 음악대학과 로열·콘서버토리·오브·뮤직에서 가르치게된 소프라노 이주연씨는 이대 음대출신으로 서독에서 성악과 오페라를 공부했다.

69년 제1회 제네바 국제음악경연대회에서 1등했고 70년 몬트리얼 국제성악경연대회에서도 1등했다. 서독, 제네바, 베니스등지에서 독창회및 협연, 오페라 연주를 가진 이씨는 작년부터 토론토에서 살았다. 캘거리와 에드몬톤, 워털루등에서 〈마태수난곡〉, 〈엘리야〉, 〈메시아〉, 〈장엄미사곡〉등에 출연했다.

◆메조·소프라노 양경자씨


◆테너 조영호씨

### ●메조 양경자씨

메조·소프라노 양경자씨는 이화여대를 졸업한 뒤 워싱턴의 아메리카 캐톨릭대학에서 석사학위를, 필라델피아 콤 칼리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64년 동아콩쿨에서 1등, 67년 워싱턴 국제리전트경연대회에서 1등했고, 69년 뉴욕의 타운·홀에서 리사이틀을 가졌다.

현재 필라델피아 콤 칼리지 교수로 활약하고 있다.

### ●테너 조영호씨

테너 조영호씨는 서울음대에서 학사와 석사를 끝낸뒤 줄리아드음대에서 오페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각지에서 오페라에 출연한 외에 미국의 저명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바리톤 신경욱씨

### ●바리톤 신경욱씨

바리톤 신경욱씨는 서울음대 출신으로 인디애나대 음대에서 성악및 오페라 무대감독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5년간 KBS합창단을 지휘했고 5년간 서울예고 교장을 지냈다.

KBS교향악단과 서울시립교향악단, 루복교향악단등에서 독창자로 활약했다.

현재 텍사스·텍 대학 성악과 부교수로 재직중이다.

◆5일 LA킹과 대전에 1골과 4개의 어시스트 기록, 29게임 연속 포인트를 기록한 에드몬톤 오일러의 웨인 그레츠키.(관계기사 2면에)

## 약혼녀·부모 60대40 분배

### 김득구 유산 1억1천7백만원

(서울=4일)금년 20세의 고 김득구선수의 약혼녀 이영미양이 김선수의 유산중 일부인 $35,820를 받았다.

김선수의 유산분배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권투위원회(KBC)는 이양측과 김선수의 어머니 양선녀와 합의, 이양 60%, 양 40%의 비율로 나누기로 했다.

약 16만달러(한화 1억2천만원)로 추산되는 김선수 유산은 대전료, 생명보험금, 기부금, 기탁금등을 망라한 것으로 토론토에서도 600여달러가 걷혀 본사를 통해 기탁됐다.

이양의 유산상속조건은 임신중인 김선수의 자녀를 출산하는 조건이 포함됐으며 만약 출산에 실패하면 60%의 반인 30%가 KBC가 지명하는 다른 친척에게 분배된다.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다이아몬드·순금
약혼·결혼예물 귀국선물
☎ : 534-9977 7791 6204 Bloor St. W.

아시안 게임

## 한국, 종합 3위

### 중공 대회 첫 우승

(뉴델리3일=한국신문공동취재반)제9회 아시안게임 마지막날에 출전한 한국은 남자농구 결승에서 접전끝에 전년도 우승팀 중공을 85-84로 누르는등 복싱에서 7체급을 휩쓸고 배드민튼의 금메달 1개 추가로 금메달 9개를 보태 도합 금 28, 은 28, 동 37로 당초목표 3위를 무난히 달성했다.

74년 테헤란대회부터 출전한 중공은 8년만에 아시안게임 만년우승국인 일본을 젖히고 금 61, 은 51, 동 41로 사상처음 우승했다. 1회대회부터 8회대회까지 우승을 놓치지 않았던 일본은 금 57, 은 52, 동 44로 31년만에 2위로 물러났다.

인도와 4위를 놓고 접전을 벌이던 북한은 금 17, 은 19, 동 20으로 무난히 4위를 차지했다.

4일 하오의 화려한 폐막식을 끝으로대회를 끝마친 제9회 아시안게임에는 모두 33개국이 출전, 15일간의 대회를 마쳤다.

— 바로 잡음 —

6일자 1면 「한국마라톤우승」 기사의 선수이름은 김정곤선수가 아니라 김양곤 선수였읍니다.

제9회 아시아대회의 종합메달순위는 다음과 같다.

| | 금 | 은 | 동 |
|---|---|---|---|
| 중공 | 61 | 51 | 41 |
| 일본 | 57 | 52 | 44 |
| 한국 | 28 | 28 | 37 |
| 북한 | 17 | 19 | 20 |
| 인도 | 13 | 19 | 25 |
| 인도네시아 | 4 | 4 | 7 |
| 이란 | 4 | 4 | 4 |
| 파키스탄 | 3 | 3 | 5 |
| 몽고 | 3 | 3 | 1 |
| 필리핀 | 2 | 3 | 9 |
| 이라크 | 2 | 3 | 4 |
| 태국 | 1 | 5 | 4 |
| 쿠웨이트 | 1 | 3 | 3 |
| 시리아 | 1 | 1 | 1 |
| 말레이시아 | 1 | 0 | 3 |
| 싱가포르 | 1 | 0 | 2 |
| 레바논 | 0 | 1 | 0 |
| 아프가니스탄 | 0 | 1 | 0 |
| 홍콩 | 0 | 0 | 1 |
| 베트남 | 0 | 0 | 1 |
| 바레인 | 0 | 0 | 1 |
| 카타르 | 0 | 0 | 1 |
| 사우디 | 0 | 0 |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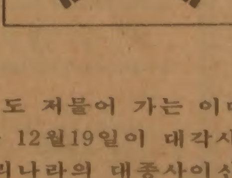
캐나다한국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사무실
410 DUNDAS ST. E.
☎ : 961-2417
(12월20일부터)
537-3171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온 누리에게 卍
우리 교포 교민 여러분

임술년도 저물어 가는 이때 연일 정진중이시리라 믿사오며 돌아오는 12월19일이 대각사 창건주 김평등심 영가 49재를 맞아 우리나라의 대종사이신 활산 성수 화상님을 모시고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법회를 개최하오니 피로움을 떠나지 못하는 우리 중생 무릇 참례있으시길 맞이합니다.

○창건주 보살님의 뜻 온 세계 사람우 있서 인연있면 같이 참선공부할여고 절을함
"온 세계 사람위해 인연있으면 같이 참선 공부할려고 절을 지음"

곳 : 한인회관 (20 MOBILE DR)
때 : 1982년12월19일(일요일) 오후3시

종교관

안심하고 입명하자는데 있는것이니 너 나에 집착해 가지고 어느때 평온한 마음을 가지겠읍니까?

모든것을 초월해 40여년을 수도에 전념하신 스님의 말씀을 듣게 될 이번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내종교 타종교를 떠나 삶의 길을 열으시기 빌어 맞이합니다.

대각사 혜관스님 합장
자비의 전화 : ☎ 463-8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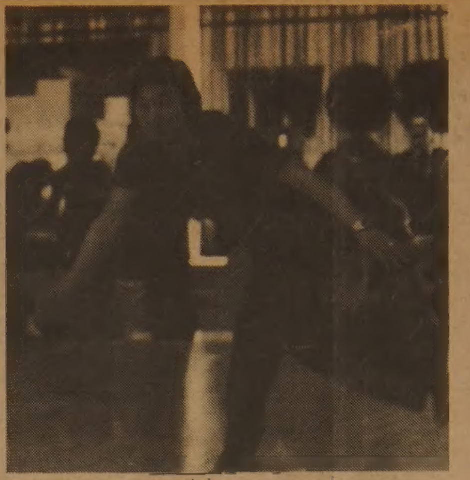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 볼링대회

# 최종대 우승

## 단체전은 연합교회로


◆제2회 코리안컵 볼링대회에서 최종대씨(우)가 챔피온이 되었다.

금년도 한인사회의 볼링의 최강자로 비행기부품공장의 메카닉·엔지니어로 근무하는 최종대(33)씨가 부상되었다.

최씨는 4일 재캐나다한인볼링협회 주최, 토론토 한국일보 후원으로 Pro 10 Pin Bowl에서 개최된 제2회 코리언컵 볼링대회 개인전에서 3프레임(frame) 통산 전적 553점으로 챔피온이 되었다.

남자 34명, 여자 14명등 도합 48명이 참가한 개인전의 남녀1위는 김홍배(534점)씨와 이호숙(430점)씨에게 각각 돌아갔다.

지난해 제1회 대회의 챔피온인 문덕래씨는 금년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 396점의 저조한 기록을 보였다.

대한, 베델, 천주교, 순복음(캐나다), 동부장로, 연합 등 6개교회팀이 참가한 단체전(6인조, 3프레임경기)에서는 2,652점을 기록한 연합교회가 차지했다.

한편 남녀별로 각 프레임 최고스코아를 뽑는 하이·싱글(High Single)은 최종대(210점)씨와 전옥이(166점)씨가 각각 차지했다.

또한 ABC와 WBC규정에 의한 핸디캡(Handicap)에서는 핸디캡 81을 포함 608점을 기록한 김동천씨가 남자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여자부문의 1위는 핸디 204로 619점을 딴 조경숙에게로 돌아갔다.

15쌍이 출전한 부부혼합전에서는 467점을 기록한 김동천·김인옥조가 1위를 차지했다.

금년도 챔피온인 최종대씨는 81년9월부터 82년5월까지 계속된 81/82년도 한인볼링리그에서도 36주간 에버리지(average) 172점으로 1위를 마크했다.

볼링협회 오상균총무에 의하면 지난 9월에 개막, 내년 5월까지 계속될 82/83년도 리그에서는 10개조(1조 4명)로 나누어 매주 금요일 6시30분부터 경기를 벌이고 있다.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된 이날 대회의시상식은 18일(토) Albion Community Center(1485 Albion Rd,×Kipling Ave.)에서 열리는 볼링협회 크리스마스및 송년파티와 겸해서 행해진다.

저녁 7시30분부터 새벽 1시까지 계속되는 송년잔치는 행운경품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이번 대회의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개인전
챔피온－최종대(553점)
남1위－김홍배(534점)
2위－조병준(526점)
3위－장인택(488점)
여1위－이호숙(430점)
2위－전옥이(426점)
3위－정덕자(389점)

◆핸디캡
남1위－김동천(608)
2위－조경남(575)
3위－이상수(575)
4위－정철화(566)
5위－박영철(558)
여1위－조경숙(619)
2위－이영순(564)
3위－김성향(564)

◆하이싱글
남－최종대(210점)
여－전옥이(166점)

◆부부조
1위 김동천－김인옥(467)
2위 장인택－장한샘(447)
3위 최종대－최형옥(439)

◆단체전
1위 연합교회(2,652점)
2위 베델교회(2,551점)
3위 순복음(2,531점)

◆장려상
남－송기실, 여－최성남

---

## 金聖鍾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 第5의 사나이

<124>

## 출발 ⑤

### 상대의 목을 조르며 배후조직 캐묻자…

사내는 그의 눈치를 살피며 다시 땀을 닦았다.

창의 가는 입술이 다물어졌다. 입꼬리에 가는미소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부탁에 응한단 말이요?』.

그는 조용히 물었다. 사내는 희미하게 웃었다. 기분 나쁜 웃음이었다.

『모종의 특수한 일이라고 말하면 잘 아실 거라고 하던데요.』

창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다. 그는 한참동안 말없이 앉아있다가 이윽고 머리를 저었다.

『무슨 일인지 나는 잘모르겠오. 그리고 어떤 조직의 어떠한 부탁도 들어줄수는 없다고 전하시오. 이빨을 고쳐달라면 몰라도…』

『일단부탁하면 들어주셔야 합니다. 말이 부탁이지 사실은 명령입니다.』

『돌아가주시오. 내가 화를 내기 전에.』

그는 사내를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나서 몸을 일으켰다. 사내도따라 일어섰다.

『부탁을 거절하면 신상에 해로울거요. 우선 이 치과도 문을닫아야 할거고…』

『뭐라고?』

그는 재빨리 상대방의 멱살을움켜쥐었다.

『당신이 무슨 돈으로 이 병원을 차렸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사내는 목이 막혀 다음 말을잇지 못했다.

그는 넥타이를 움켜잡고 비틀었다. 사내의 얼굴이 보라빛으로 변했다. 그는 주먹으로 사내의 오른쪽 얼구리를 올려쳤다. 사내는 신음을 토하면서 무릎을 꺾었다. 그는 사내의 상체를 소파위에 눕어놓고 목을 짓눌렀다. 그리고 한손으로 탁자위의 펜을 집어 그의목을 찔렀다. 피와 함께 잉크가 번졌다.

朴男 그림

『조직의 이름을 말해! 말하지않으면 이게 목속으로 다 들어간다.』

방문자는 고통을 이기지못해 얼굴을 온통 찡그렸다. 마침내 그의 입이 열렸다.

『트…트라이…앵글』

『다시한번!』

그는 목을 조금 늦추어주었다.

『트라이앵글.』

창은 자기 귀를 의심했다.

『특수한 일이란 뭐야?』

『그건 모릅니다. 나중에 알게될겁니다.』

창은 목을 풀고 펜을 치웠다.

사내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한참동안 기침을 했다. 그리고 그의힘에 압도된듯 두려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한손은 상처난 목을누르고 있었다.

『연락은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는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꺼내 탁자위에 올려놓았다. 창은그것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부탁을 듣는게 좋을겁니다. 선생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사내는 원장실을 나갔다.

창은 그를 대기실 밖에까지 배웅해주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닫았다. 누가 보기에도 그는점잖고 예의바른 치과의사였다.

---

# 작년보다 참가회원 적어

## 한인상가 번영회 연말파티

불경기 탓인지 금년도 한인사회의 연말파티는 인원수가 적어지고 있다.

지난 3일밤 뉴서울식당에서 벌어진 코리아타운번영회(회장 장순채) 연말파티에는 작년보다(약 150명 참석) 적은 약 100명의 회원들만 참석, 금년 한해의 회고담과 함께 내년의 경기회복을 기대하면서 한때를 보냈다.

캐네디안 손님으로는 잉·호프의원과 프러드·버린 시청직원외에 5명의 경찰들만 참석했다.

이날 주빈으로 초대된 잉·호프의원은 작년도 서울방문담을 얘기하면서 포니자동차의 우수한 성능과 값싼 가격을 선전(?), 포니의 캐나다진출을 예상케했다.

번영회 회원들 외에도 초대인사로 동우회 원영신회장, 올림픽후원회 함의현회장 등이 참석했으나 총영사등 한국관리들은 밴쿠버에서 있은 「캐나다지역 수출진흥회의」 때문에 불참하고 박영철 부총영사, 이수신 외환은행전무 등 2선들이 대신했다.

오리엔탈·파레스무용단의 쇼를 즐기면서 밤 12시까지 보낸 회원들은 비싼 술값 때문에(위스키 $3, 맥주 $3) 만취 못했다는 것이 일부 회원들의 불평이다.

◆좌로부터 14디비젼의 프레디·매로린, 시청관리 프레드·버린, 한복차림의 미세스 잉·호프, 시의원 잉·호프씨, 박영철 부총영사.

# 그레츠키 또 신기록

## 29게임 연속 포인트

(에드먼튼)하키스타 웨인·그레츠키가 또하나의 신기록을 세웠다. NHL 경력 4년째인 21살의 그레츠키는 몬트리얼·캐네디안의 노장 게이·라플레가 갖고 있던 28게임 연속포인트를 돌파하고 29게임째 포인트를 얻었다.

그레츠키는 5일 에드먼튼·오일러와 LA·킹스와의 대전에서 1골 4개어시스트로 5포인트를 추가, 에드먼튼이 7:3으로 LA를 이기는데 원동력이 되었다.

29게임을 치른 현재 그레츠키는 한게임도 놓치지 않고 22개의 골 52개어시스트를 기록, 74포인트로 개인성적 1위를 마크하고 있다. 그레츠키는 시즌당 골포인트등 각종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그레츠키는 작년 시즌에 92골·120어시스트로 212포인트를 기록했으며 금년에도 이 기록갱신이 기대된다. 금년 29게임연속기록은 시즌전게임(80게임) 기록의 가능성도 있다.

하키의 개인성적기록은 골과 어시스트 똑같이 1점으로 계산, 그 종합점수로 개인성적을 매긴다.

스포츠에서 연속게임기꾸준성(Consistancy)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 하키는 거친 운동경기로 자주 부상을 입게돼 게임을 연속적으로 출전못하는 선수들이 많다.

---

## 음악평

# 제2회 메시아 공연을듣고서

안 병 원

지난 4일 저녁 메시홀에서 연주된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구세주)"를 듣고 오랜만에 음악의 아름다운 본질에 흠빽 젖어보는 매혹의 순간을 맛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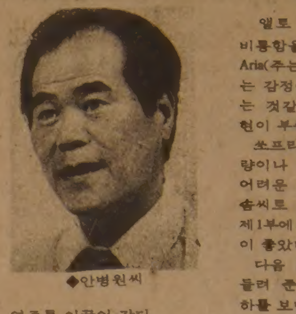
많은 음악 중에서도 이처럼 가사를 통한 직접적인 자극과 화음의 음향을 들을 때 차원높은 예술의 경지를 맛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합창예술의 표출에 있어서는 지휘자의 능력, 단원들의 기량, 여기에 피나는 훈련이 가해졌을 때만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헨델의 "메시아"곡이 일반적인 환영을 받는 것은 연주회용 종교음악에 독창으로 Aria(영창), Recitative(서창), 중창, 합창에 관현악반주로 작곡자의 위대성을 증명하고 연주자나 듣는 사람에게 큰 감명을 주기 때문이다.

지휘자 박재훈 박사는 많은 경험과 학식 또는 독실한 신앙에서 오는 종교음악가로 알고있다.

이날의 연주는 세련된 일류 성악가들의 독창과 보기드문 많은 인원이 동원된 합창, 기성인들로 구성된 관현악 반주, 자신감이 넘친 섬세하고 열의찬 지휘자의 지휘로 성공적인 연주를 이끌어 갔다.


◆안병원씨

전편의 장엄한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는 서곡 신포니아는 지휘자와 악단과의 호흡이 잘 맞지않아 어색했다.

테－너 조영호씨는 약간 박력은 없으나 티가 없는 고운 소리였다. 특히 제1부인 Aria(모든 골짜기 높아지리라)가 좋았다.

베이스 신경욱씨의 제1부 Aria(주 오시는 날 누가 능히 당하리)는 박력있고 감정이 풍부한 노래였으나 저음에 가서 약한게 아쉬웠다.

제3부의 Aria(나팔이 울리리라)는 레파토리를 장식하는 명곡인데 Trumpet의 Obligato가 연습부족인지 노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여 대단히 유감스러웠다.

엘토 양경자씨의 가장 비통함을 나타낸 제2부의 Aria(주는 멸시를 당하시고)는 감정을 내어 잘 불러주는 것갈았으나 완전한 표현이 부족한 느낌이다.

쏘프라노 이주연씨는 성량이나 감정이 풍부하고 어려운 고음 부분도 멋진 솜씨로 불러주었다. 특히 제1부에서 계속되는 서창이 좋았다.

다음 15곡의 대합창곡을 들려 준 합창단원에게 치하를 보낸다.

단원과 지휘자가 완전 일치되어 좋은 연주를 해 주었다.

특히 쏘프라노 파－트의 음량과 음색이 뛰어나 다른 파－트와 비교가 되었다.

제2부의 합창곡(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은 단화음으로 비극을 나타내는 수난곡이 좋았고, 다음 "머리들라 문들아"는 헨델의 탁월한 수법을 아낌없이 발휘한 부분이다. 작곡자의 뜻을 살린 합창이었다.

전체적으로 베－스 파－트가 약해 무게가 없고 테－너 파－트는 좀 더 명확한 리듬의 표현을 해 주었으면 바람직했다. 마지막 합창 "아멘"은 전합창단원과 지휘자의 노력이 충분히 나타난 아름다운 연주였다.

## 글 읽어 주는 컴퓨터 개발

(도꾜)책장을 한장 한장 넘기는 로보트와 한문 섞인 문장을 Setup하면 자연스런 말소리로 낭독하는 콤퓨터가 일본의 전산(電算)공사 기술진에 의해 개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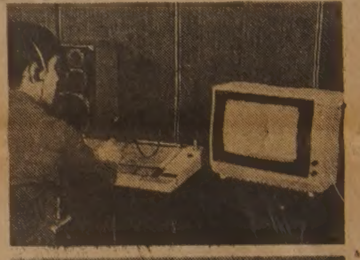
이상 두가지 장치를 연결하면 장래는 전화번호 문의에 대한 대답, 소설낭독, 라디오·뉴스등의 발성보도등 다방면의 것을 사람대신 해낼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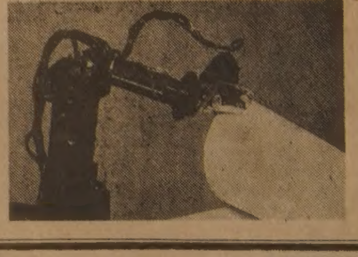
이것은 지난 29, 30 양일에 걸쳐 일본 도꾜 근교의 전산공사 요꼬스까전기통신연구소에서 일반에게 공개됐다.

이번 공개의 주요점은 1)일본문장 음성의 출력장치, 2)문자보드로 신문기사, 백과사전등의 문장을 넣으면, 단어단위로 나누어 앞뒤 단어에서 발음이 같은 낱말이라도 30만 항목의 「한자, 일어 변환사전」을 사용, 판별해내서 곧 낭랑한 소리로 읽어낸다.

신문기사등도 99.5%의 확률로 정확하게 읽어낸다고.

이번에 공개되지 않은 것 이나 OCR(문자낭독장치)와 이것을 연결하면 그대로 독서기계가 된다.


(위)문장낭독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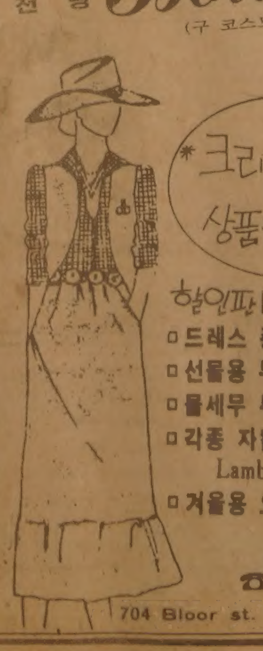

(하)책장을 넘기는 로보트

## 연합 성탄예배 교역자회 주최

올해 토론토 교회들의 연합 성탄찬양예배는 오는 12일(일) 저녁 7시, 제일장로교회(68 Collinson Blvd, Downsview)에서 열린다.

각교회 성가대의 성탄송가를 곁들인 이번 연합축하예배는 토론토한인교역자회(회장 안병한 목사) 주최, 한인침례교회(담임 홍신웅 목사) 주관으로 진행되며, 특별설교는 김재광목사(영락교회)가 담당한다.


·밍크·폭스·세블·라쿤
밍크
ⓒ 록키모피
오더 메이드 전문공장
정 승 규
315 ADELAIDE STREET WEST
TORONTO TEL 593 0189

숙녀복 전 당
Mirage Boutique
(구 코스모스)

*크리스마스 선물용 상품권 판매*
할인판매
ㅁ드레스 종류
ㅁ선물용 부라우스
ㅁ울세무 투피스(size 6,8,10)
ㅁ각종 자켙(Pig skin, Lamb skin, Rabbit Fur)
ㅁ겨울용 오바 코트
대표 최은경
☎ : 530－1870
704 Bloor st. W(아리랑하우스 옆)

中東 同門
동창연말파티초대
아래와 같이 연말파티를 갖고자 하오니 동문 여러분께서는 부부동반 하시어 즐거운 한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일 시 : 12월11일(토) 오후7시
◈장 소 : 마초레스토랑
◈회 비 : 부부 $30
◈연락처 : 홍사겸 ☎ 742－5672
이용석 ☎ 595－0836
중동 중·고교
동창회장 홍 사 겸

인사 말씀
금번 임윤식씨께서 온타리오 주정부 부동산 세일즈맨 면허를 획득하고, 본사에 근무하게 되었읍니다.
본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은 능력있고, 성실한 세일즈맨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 자부하면서 교민사회 발전을 위하여 더욱 공여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에 세일즈맨의 중원을 인사드립니다.
황용현 배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M3B 1Z3
TEL. (416) 449-8641, 8645(B), 288-1548(R)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합.
◎ 컴퓨터 · 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 역할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활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월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 생활철학·유모감각 같은 사람들을 초대하라

## 年末·年始 즐겁게 손님을 접대하려면…

### 「완벽한 파티」 秘訣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가 되면 집에 손님들을 초대, 파티를 열 기회가 많아진다. 손님들 모두가 맛있게 먹고 마시고 즐길수 있는 완벽한 파티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들이 들려주는 완벽한 파티의 비결을 들어보자.

▲파티준비

파티의 요즘 경향은 보다 가볍고 단순하게 하는 것. 음식을 서브할때도 큰 플레이트 하나에 고기, 야채등의 메인코스를 담아서 낸다. 이것은 서브하기도 편하고 닦기도 편하기 때문. 예전에는 여러차례에 걸쳐 음식을 서브하던 것을 요즈음은 그수를 줄인다는것. 그러나 이 경우에는 디저트에 중점을 두어 빈약한 식사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부페파티의 경우는 디저트를 포함, 모든 음식을 한꺼번에 내놓아 손님들이 미리 먹을 음식의 양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줄을 서서 음식을 기다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5명 정도를 한번에 모아서 식탁으로 안내하는 재치가 필요하다. 꽃은 하루전에 사서 집에서 보기좋게 피게한다.

▲손님접대

가장 이상적인 손님 수는 8~12명정도. 이것은 보다 손님들끼리 친숙하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하기 때문. 그리고 식사는 환영축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또한 디너파티인 경우에 손님들을 곧 바로 식탁으로 안내하는 것보다는 칵테일파티로 약 45분 정도 시간을 끌어 늦게 도착한 손님들에게도 여유를 주도록 한다. 먼저 온 손님들이라도 이정도 시간이 지나면 허기를 느껴 식탁에 앉고 싶어한다.

초대할 손님의 명단을 작성할때는 나이, 직업, 관심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고르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도 생활철학이나 유모감각이 같은 사람을 선택하면 더욱 좋다. 너무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파티장소가 마치 사무실처럼 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

손님접대에서는 호스티스의 역할이 중요하다. 비록 긴장이 되더라도 항상 여유있는 태도와 밝고 신선한 인상을 주도록한다. 손님이 도착하면 문에 나가 손님을 맞이하며 손님을 바쪽으로 직접 데리고 가지말고 손님에게 걸어가 어떤 것을 마실지 물어본다. 손님을 서로 인사소개시킬 경우 공동관심사를 가진 손님을 우선 골라 쉽사리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때를 봐서 손님 한명씩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면서 인사하게 한다. 또한 손님들이 한곳에만 모이지 않도록 여러 곳에음식을 나누어 서브하는 방법도 좋다.

▲칵테일파티

최근 사람들의 술기호는 하드·리큐어에서 가벼운 와인 종류로 바뀌어지고 있다. 화이트·와인이라면 보통 여성들이 마시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요즈음은 남성들도 즐기고 있다. 또한 도수도 낮고 칼로리도 낮은 새로운 라이트·와인이 나와서 호평을 받고 있다. 럼주나 테킬라도 사람들이 즐겨 찾는 술중의 하나. 반면 짙은 색의 위스키는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와인은 50도~54도로 식혀야 제맛이 난다. 와인과 얼음은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 앉아서 먹는 디너파티인 경우 여러 코스가 나오는 식사인 경우에는 1인당 3~4잔정도로 따져서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얼음은 8사람 이상의 파티에서는 봉지에 든 얼음을 사도록 한다. 술한잔에 큐브 아이스 4개를 25~30명정도는 4파운드 정도의 얼음을 준비하면 된다.

▲음식장만

파티도중에 음식이 모자라면 크게 당황하기 마련이다. 우선 파티에 올 손님들중에 식욕이 왕성한 사람이 몇명인지를 파악해둔다.

흔히 요리책에서 「서빙(serving)」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의 수가 아니라 사람의 룸을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대식가가 있을때에는 요리책에 지시된 양보다 조금 더많이 한다.

초면인 사람들을 초대 음식대접할 경우는 여분으로 3분의 1정도 더 마련해 둔다.

### 음식은 디저트중점 가볍고 단순하게
### 친숙하게 대화 나눌수있게 분위기를

▲X-머스 구매시즌을 맞아 손님끌기에 안간힘을 쓰고있는 백화점.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 합니다
각종김장김치 주문환영
해밀톤지점 ☎: 1-385-1485
서부지점 ☎: 243-9544

三國志 517 글·高羽榮·그림

〈독자 투고〉

## 나는 너에게!

최 수 호

인과의 원칙은 인류역사 속의 장을 이루는데 불가결한 무형의 존재로서 대두돼 왔음을 두말할 것조 없다. 어떠한 원인이 있었기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법망에 걸린 범법자가 법을 다스리는 자를 미워해서도 않되고, 어느 국회의원입후보자가 반대를 하는 유권자를 미워해서도 안되겠다는 말이다.

왜? 라는 자문 속에 "소크라테스"의 철언으로 자답할 수 있는 지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는 지난 11월27일 제18대 한인회장선거에 단독입후보한 C씨 회장단의 인준투표임시총회에 참석키 위해 고태심출같은 돈 $10를 포켓에 넣고 정해진 장소에 나갔다. 한인회선거관리법에 의해 공고돼 왔었고, 역시 현장에 가보니 10달러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음은 퍽이나 호못하였다. 입구엔 부인들의 봉사하는 모습이 보였고, 추운날씨에 열을 서서 비밀투표용지 교환권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교민들의 모습들이 한눈에 들어왔을 때 한인회가 일보전진하고 있음이 여실히 증명되었었다. 그러나 그 장면에서의 느낌은 1시간도 못돼 탈바꿈되었고, 임시총회진행 30분도 못돼 단상에는 현 한인회장만이 마이크를 잡고 제18대 한인회장단 인준을 거수로써 결정짓자는데 광분하고 있었다. 물론 한인회 부회장, 선거관리위원장, 이사장은 회의를 불법진행하고 있음을 규탄하면서 모두들 하단해 버렸다. 15년이란 한인사 속에 11월27일과 같은 퇴보적이고 미개적인 모임은 내가 기억하기엔 없었다고 본다.

돌이켜 보면 먼 옛날같지도 않은 자유당 말기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선거가 하루 빨리 돌아오길 기다리는 "리리야" 백성들이 내 조국에 많았었다. 그럴것이 선거만 있으면 막걸리나, 비빔밥정도는 어느 후보자에게서도 얻어먹을 수가 있었고, 고무신을 얻어 신는다는 것도 어렵잖은데다가 갓쓰고 목에 댕기 맨 양반네들에게 큰절까지 받을 수 있었으니 말이다. 얻어 먹는 백성들의 머리가 좀더 발달돼 이쪽에서 얻어먹고, 표는 저쪽에 찍는다는 반발성, 좋게 말하면 주관성 있는 투표행사라고도 할 수 있다.

아뭏든 숨가쁜 일이었다. 입후보자는 돈을 뿌리기에 숨가빴고, 유권자는 얻어먹기에 숨가빴고 어깨가 무너지도록 밥을 퍼주는 부인네들 웃음에 막걸리잔을 기울이던 못수염신사 모두들 당락을 결정하는 순간까지 숨가빴던 웃지못할 사실이었다.

그랬기에 일명 고무신국회의원, 막걸리·비빔밥국회의원이란 별명이 붙었고, 그런 별명을 가진 국회의원일수록 의사당에서 4년간 발언 한번 못하고 거수국회의원으로서 맹활약하게 되었으며, 한번 거수하는데 상당한 액면을 놓고 흥정하면서 국회의원선거전에서 뿌렸던 경비를 뽑아내고, 차기 재출마 자금까지 축재하는데 급급하며, 의사당의 빈 자리만 메워왔었다.

그러한 썩은 무리들의 시대적인 착각에 2.4.정치파동, 4사5입 개헌파동, 6인조 9인조 부정선거를 빚어냈고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수탈당하고 정치적으로 농락돼 왔으니 종말엔 56억달러라는 외채를 짊어지고 자유당의 검정막은 내려졌었다.

아울러 4.19란 고귀한 백만학도의 피를 위에서 부정축재자 소위 권력층에 속하는 부류들은 자동케이스, 십사케이스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만 되었던 역사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있었으니 이는 영원히 씻을수 없는 역사의 오점이 아닐수 없다.

이렇게 나의 성장과정은 부조리의 협화속에서, 혼탁스런 세대의 풍조속에서, 비현실적인 연륜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인지 지난 11월27일의 제18대 한인회장 인준투표의 임시총회의 양상은 석연치 않은 악몽같은 "패노라마"가 나의 목위에 얹어진 멍청한 머리를 두들겼음은 사실이다.

분명 소련공산당 "케.페.우"가 참관하고 있는 연차총회는 아니련만 어이타 우리 선배들의 빛나간 전철을 다시금 회상케하고, 소년시절에 보았던 반공영화의 일면 악질적인 인민재판을 나로 하여금 방불케 하는고?

아무리 햇빛없는 구멍가게에서, 먼지와 기름냄새 풍기는 공장 노동판에서 언어풍습이 전혀 다른 이질사회 속에서 생활을 꾸려 나가는 우리 교민들이지만 어느 민족에게도 뒤지지 않는 이성과 지혜의 양식은 풍부하다고 생각되는 자랑스런 우리 민족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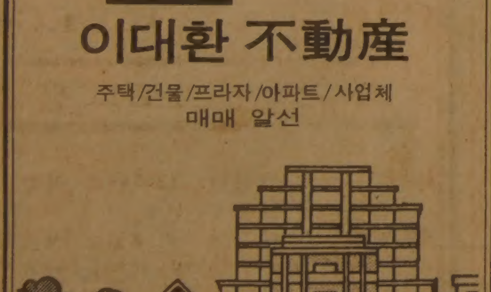
이러한 우수한 민족 위에 3만 교포를 대표하는 한인회 회장이란 의자가 있으니 이 의자는 곧 3만개라는 건전한 못이 박혀있는 무겁고 값진 의자라는 것을 우리 모두 깊이 명심해야 되겠다. 흔해빠진 커피숍의 의자가 아닐진대 한개의 못이 빠져도 잃어버린 양을 찾는 선한 맘과 같이 기필코 빠진 못을 찾아 닦아서 올바로 박아야만 되는 역량이 한인회 회장에게는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다. 물론 그 의자에 10분지 1도 안되는 못이 박혀서도 안되고, 플라스틱 또는 나무못이 박혀 있어서도 안되겠다. 부서진다는 것도 되겠지만, 의자자체의 무게가 퍽이나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바라건대 한인회장으로서는 스스로 한인회의 권위를 실추시켜서도 안되겠고, 3만교민들을 속이는 기만성도 없어야 되겠고, 원칙을 무시하고 정법을 짓밟아 버린채 저질적인 모임을 가져서도 안되겠다. 우리는 모두 모순의 틈바구니에서 탈피하고, 침체돼 있는 오늘에서 보다더 발전조건으로 바꾸면서 교민들이 한인회에 바라는 공통분모를 서로 발견하였을 때 우리 한인회는 알차게 성장할 것으로 믿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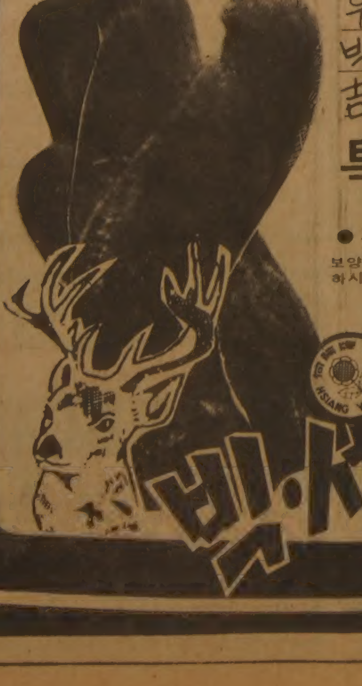
적은 비용으로 알찬효과를 보는 한국안내광고란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이대환 不動産
주택/건물/프라자/아파트/사업체
매매 알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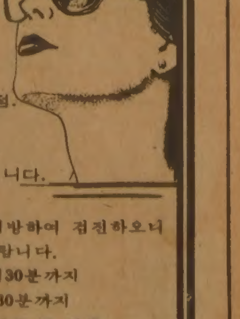


전문지식과 오랜 경험으로
친절히 봉사합니다
(몰게지 상담)
609 BLOOR ST. WEST
TORONTO, ONTARIO
B) 535-1251
535-1260
R) 536-4250




우리가족 건강 365일은
빅·세븐에서 직수입 하여온
吉林產 녹용으로!
특별할인봉사
● 진풍웅담 ● 녹용(인삼 제품)
보양강장제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일차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철 생활영어 카세트테프와
비데오테프 다량입하!
잰비 넥타이, 지반지 Y셔츠
귀국 선물 용품
빅·세븐 선물센타
678 BLOOR ST. WEST
533-7966

불루어안경
◈ Rodenstock
◈ Zeiss(Marwite)
◈ Christian Dior
◈ Menrad
◈ 안경제조 · 수리 · 복사처빙
◈ 안과의사알선
(No Appointment)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Green Shieleld
◈ 정부 보조 안경지점 영업소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합니다.
◈ Contack Lens
※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 4시30분까지
(안과의사 사무실은 본상점과 한 부록 떨어져 있음)
※영업시간 : 월~목 9 : 30AM~7PM
금 9 : 30AM~8PM
토 9 : 30AM ~8PM
635 BLOOR ST. W
☎ : 531-2236(B) 886-0722(R)



# 한국일보

◇全斗煥 대통령이 平統정책자문위원들과 오찬을 갖기에 앞서 이들을 접견하고 있다.

## 平統委員 1백88명 全대통령, 오찬격려

全斗煥대통령은 2일낮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청와대에서 서울江東區, 강원華川郡, 충남牙山郡, 전북裡里市등 4개지역의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1백88명을위해 오찬을 베풀고 이들의 노고를 치하 격려했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80년대의 국제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미묘해서 앞날의 변화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있다』고 지적,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각국의 정치와 경제동향등을 면밀히 注視하면서 우리스스로의 안전과 이익을 추구하는데 최선을다해 나가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우리나라는 이제 모든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注目과 관심을 모으는 국가로 浮上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그에 합당한 지위와 國益을 확보하고 응분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해 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하고『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불확실성과 不安定性의 이 어려운 激動의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갈수 있을뿐 아니라 오히려 이를 제2의 跳躍과 통일을 위한 하나의 轉機로 활용할수도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 陸上選手등에 祝電

全斗煥대통령은 2일 아시아경기대회 테니스 남자복식과 육상2백m경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金春浩·李우룡선수와 張在根선수에게 각각 축전을보내 치하했다.

## 카타르文敎相 敍勳

全斗煥대통령은 2일 하오 청와대에서 카타르의 쉐이크·무함마드·빈·하마드·알사니文敎相(카타르國王親兄)을 접견하고 修交勳章光化章을 수여했다.

이자리에는 李奎浩문교, 朴贊鉉총무처장관과 무함마드·알리駐韓카타르대사 (일본常駐)가 배석했다.

# 레바논派兵 않기로

## 外務部、레바논에 통보

## "國內外 與件으로 어려움 平和·再建 다른方法지원"

정부는 한국군을 레바논에 派兵치 않기로 결정했다.

외무부는 2일『레바논정부의 한국군파견요청을 그동안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내외적인 여건에비추어 현시점에서 군대를 파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이같은 우리정부의 입장을 오늘(2일)레바논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이어『레바논정부가 레바논의 多國籍軍에 한국이 참여해줄것을 요청해온것은 매우 명예로운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를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점이많다』고 그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외무부는 이기회에 평화정착과 국민화합을 통하여 레바논의주권과 영토를 보전하려는 제마옐대통령의 영도력을 높이 평가하며 레바논의 평화회복과 재건을위하여 우리가 할수있는 다른 가능한 분야에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을 분명히 했다.

레바논정부는 지난달 6일 文昌華駐레바논대사를 통해 한국군派兵을 요청해 왔는데 정부는 그동안 주변 아랍국가를 포함한 세계각국의 반응과 국내여론을 종합분석한 끝에 26일만에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것이다.

정부는 派兵이외의 방법으로 레바논을 지원하겠다는방침을 레바논정부및 미국과레바논주변 아랍국가들에게 통고한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정부의 이같은 입장과 對中東정책은 金相浹국무총리가 지난달 29일 「팔레스타인人과의 국제유대의날」을 맞아『대한민국정부는 팔레스타인人들이 민족자결이라는 不可讓의 권리를 행사할수있도록 국제사회가 물심양면으로 팔레스타인人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메시지에서 이미 시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과함께 레바논정부로부터 派兵요청을 받은 서방5개국중 영국은『少數병력밖에 보낼수없다』는 입장이며 벨기에는『병력은 보낼수있으나 경비부담은 곤란하다』고 밝혔고 스웨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등 3개국은 부정적인 결론을 레바논정부에 이미 통고한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조치는 타당 與野논평

▲民正黨 金璟泰대변인=레바논의 派兵요청은 우리의 國威와 평화유지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기초로한 것으로서 레바논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好戰的인 북괴의 南侵야욕으로 빚어진 南北韓의 긴장상태 때문에 派兵에 응할수 없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러한이유를 근거로한 이번 정부의 조치는 타당한것이라고 본다.

정부는 앞으로 레바논사태에 깊은 이해를 갖고 평화유지를 위해 다른 방법으로 참여할수 있는 길을 모색해 줄것을 촉구한다.

▲국민당李成一대변인=派兵문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정부측에 제의했던 우리黨으로서는 우선 안도의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결정으로 평가한다.

# 政治議案에 異見

## 與野、계류·우선處理등 계속 논란

국회는 새해예산안을 통과시킨데이어 3일부터 常任委를열고 각종법안등을 심의할 예정이나 與野간 爭點이 되고있는 政治議案처리문제를 놓고 論難을 벌일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民正·民韓·국민등 3黨의 사무총장, 정책의장, 원내총무등은 來週中 3黨3役회의를 갖고 政治議案처리문제를 포함하여 예산안통과이후의 국회운영문제등을 집중협의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民正黨의 李鍾贊, 民韓黨의 林鍾基, 국민당의 李東鎭총무는 2일상오 총무회담을열고 3일부터 13일까지 各常任委를열어 96件의계류안건에대한 심사를벌이고 14일부터 18일까지 본회의를 소집, 常委서넘어온 안건을처리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96件의 계류안중 野黨측이 제출한 정치활동피규제자해제건의안, 국회법, 지방자치제관계법, 언론기본법개정안등 政治議案의 처리에 대해서는 異見을 좁히지못해 3일하오 다시 회담을갖고 다시 절충키로했는데 民正黨은 정치議案에대해 이번會期內 처리하지않고 계류시켜 관계常委의 小委심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인데반해 民韓·국민등 野黨측은 정치의안의 우선처리를 내세우고있어 귀추가 注目되고있다.

이에대해 民正黨측은 정치解禁案의경우 이미 高度의정치적결단에 일임했고 나머지 정치의안도 제정및개정을 계속 신중히 검토한다는 자세만을 보이고있어 이번會期內 이들 정치의안이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李東鎭국민당총무는『국민당이 제출한 국회법개정안, 지방자치제법등에 우선해 양곡관리법개정안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배드민턴 女複式 金확보

## 아시안게임 우리選手끼리 決勝

【뉴델리=신문공동취재단】테니스에이어 배드민턴여자복식서도 한국선수끼리 金銀메달을 다투게되었다.

한국의 黃善愛·姜幸淑조는 2일 벌어진 제9회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복식준결승전에서 강력한 우승후보인 우디시·리린조를 2-0(17-16, 15-7)으로 완파했으며 金練子·柳尙希조도 日本의 도쿠다, 요네쿠라조를 2-0(15-12, 15-8)으로 물리쳐 한국선수끼리 2일 金메달을놓고 결승전을벌인다.

한국은 여자배드민턴의 분전으로 金메달19개를 확보했다.

## 공무원旅費 인상

### 숙박 17·7、식비 36·7%

국무회의는 2일 공무원국내旅費 규정을고쳐 대통령령을 통합하고 숙박비 17·7%, 食費 36·7%씩 각각 인상토록 했다.

이에따라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숙박비는 特地가 7천5백원에서 8천5백원으로, 甲地 6천5백원에서 7천원으로, 乙地 5천5백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됐고 食費도 特地가 5천원에서 7천원, 甲地는 4천5백원에서 6천5백원, 乙地는 4천원에서 5천5백원으로 각각올랐다.

또 국무회의는 초·중·고교교장의 예비직급기준을 현행 서기관급에서 이사관급으로 인상, 예우키로했다.

국무회의는또 13개의대통령령으로 각각규정돼있는 공무원보수규정과 수당규정을 1개의 보수규정과 수당규정으로 통합하고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게만 지급하는 교육연수기관 근무수당을 중앙공무원교육원, 통일연수소, 외교안보연구원, 경찰대학, 세무대학,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의 교수에게도 지급할수 있도록했다.

## 独立紀念館건립誠金

### 우리의 작은 精誠 : 큰뜻 이루게

<2일접수>

◆德盛貿易(株) 대표이사 金鍾洙씨=1백만원 同임직원一同=76만8천2백25원
◆佑田炭座開發(株) 대표이사 胡相哲씨외 종업원一同=70만6천원
◆城北區貞陵2洞508번지스카이주택주민一同=20만원
◆全韓國電業協會 (회장 孫羽秀) 회원一同 (추가분)=13만원
【日刊스포츠접수】
◆서울중계국교 (교장 이병숙) 전교생一同 (4차분)=8만1천8백90원
【소년한국접수】
◆종로구혜화동12통 (통장 박응우)주민一同=7만2천원
◆忠南牙山郡道高面 新堰里4구 유인현씨=5만원
【道高지국접수】
◆鍾路區三淸洞10통6·7반 주민一同=2만2천원
◆광화문 고려다방 이명철씨=1만원

電話접수 722-4171

德盛貿易(株)金鍾洙대표 外 1백76만원
佑田炭座開發(株) 70만원
貞陵 스카이주택 주민 20만원
全韓國電業協會 13만원

◇金鍾洙씨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 超緊縮속 成長 7.5%

## 새해 經濟運用계획 通貨 20~22%로 대폭축소

### 金利 現水準 유지…換率 3%이내 억제

정부는 경제의 안정기반을 굳히기위해 내년중 강력한 긴축정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金利는 현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換率은 최고3%이내에서 억제하며 통화공급도 대폭줄여 올해 30%에 달했던 총통화증가율을 내년에는 20~22%로 줄이기로 했다.

2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83년 경제운용계획시안에 의하면 내년에는 물가도 도매5%, 소비자 6%수준에서 억제되는 가운데 7·5%의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된다.

안정기조의 정착을위해 정부는 금리와 환율및 통화의 안정적운용과 함께 공무원과 공공부문의 임금인상률을 6%이내에서 억제하고 재정운용을 건실하게해서 공공부문에서의 통화증발요인을 최소화시킬 방침이다.

수출은 섬유등 경공업제품의 품질고급화와 非規制신제품개발에 주력하는등 경쟁력을 강화, 올해보다 9~14%가 늘어난 2백35억~2백45억달러로 늘려 7·5%성장을 뒷받침하도록하고 수입은 9·6%~11·8% 증가한 2백50억~2백55억달러선에서 억제키로했다.

이에따라 경상수지적자는 올해와 같은 수준인 15억달러규모에 그치도록하고 외자도입규모는 61억달러, 외환보유고는 73억달러에 달하도록 할 방침이다.

7·5%수준의 성장을 달성을 위해 수출증대와 함께 광범한 內需진작시책을 펴 낙후산업부문에 대한 기술개발투자의확대, 기계산업의 내수기반확보, 중소기업보완부문의 자속적 시책을 추진키로했다.

고용면에서는 올해실업률 4·4%를 4·2%로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또 내년중 농가소득증대, 산업생산성의 향상,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주거생활의 안정, 사회개발확충등 부문별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金총리 오늘하오 南美登程

金相浹국무총리는 오는6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 콜롬비아, 페루, 칠레등 南美3개국을 공식방문하기위해 부인 金仁淑여사와 함께 3일하오7시 대한항공편으로 출국한다.

국무총리로서는 南美를 처음 방문하게되는 金총리는 순방국의 국가원수를비롯한 정부및 의회지도자들을만나 韓半島정세를 포함한 최근의국제정세와 상호관심사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金총리는 뉴욕을 거쳐 6일부터 10일까지 콜롬비아, 10일부터 14일까지 페루, 14일부터 16일까지 칠레를 차례로 방문한뒤 귀로에 로스앤젤레스를 경유, 오는 23일 귀국한다.

金총리의 南美순방에는 徐相喆동자부장관, 盧載源외무차관, 趙英吉총리비서실장, 柳然春공보비서관, 李衍澤총리제1행정조정관, 金東圭외무부美州국장, 金恒經총리의전비서관(대리)、金興洙외무부南美과장등 9명이 공식수행하며 경제인 10명이 비공식 수행한다.

## 豫算案、本會議통과

국회본회의는 2일하오 총규모10조4천1백67억원의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킨뒤 이를정부에 移送했다.

與野 만장일치로 통과된 83년예산안은 총규모 금년對比 8·8%늘어난것이며 정부가 제출한 10조5천1백70억원의原案중 방위비3백23억1천8백만원등 歲出부문에서 모두1천3억원이 삭감된 것이다.

歲入부문에서는 內國稅7백77억2천6백만원과 방위세 2백52억 7천4백만원이 增額되어 내년도 赤字國債발행규모는 5천5백억원선에서 3천4백67억원으로 대폭축소됐다.

## 學力考查正答、本社에 비치

### 열람·전화문의 받습니다

한국일보社는 83학년도 대입학력고사의문제지와 정답을 본사3층 사회부에 비치, 5일까지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열람에응해드리는 한편 정답도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108-07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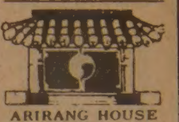
## 社會漫評

확보!! 후유…

## 地平線

야누스는 고대로마 신화에 등장했던 두얼굴을 가진 神이었다. 이 雙面神의 얼굴을 모르는사람은 로마성에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알았다. 그는 세상일의 始終도 주관했다. 묵은 한해와 새해의 오고감이 그손에 달렸었다.

고대로마인들은 1월1일이면 이 神에게 제사를 올리고 축복을 빌었다고 한다. 영어로 1월은 January. 그 어원이 야누스에 있음은 잘 알려진 이야기다. 현대의 야누스는 캘린더와 연하장이 대신한다. 「送舊」와 「迎新」의 얼굴이 함께담겼다. ▼세모의 거리에 벌써 83년 캘린더가 나돌아 눈길을 끈다. 가는해는아쉽고 새해가반갑다. 캘린더 생산량은 작년에 비해 20%쯤늘어 대강2천여만 부가 쏟아져나올것으로 추산된다. 10년만에 은행달력이 얼굴을 내밀고 기업체들도 주문량을 늘려잡았다. 판매달력값을 1부에 평균 1천원씩으로 잡아도 1백억원이 넘는 「새해를 파는」 엄청난송년市場이 형성되는 꼴이다. 새 달력을 손에 들면 알수없는 기대감이 파고든다. 야누스의 또 다른 얼굴을 보고픈 충동일까. ▼세모집배원의 어깨를 연하장과 카드가 무겁게 누른다. 크리스머스카드를 공식으로 사용한 기록은 1843년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콜 오솔리 카드」로 불리는 첫번째 인쇄카드는 당시 영국의 박물관장이 친구화가에게 그림을 부탁해서 찍어낸 것이었다. 타향에 나가있는 친지의 행복과 건강을빌며 전해주는 그림이다. 우편요금이 비싸서 크게 보급은 안되었다. 그뒤 미국에서 연하카드로 한밑천을 잡은 巨富가 탄생했다. 「카드의 아버지」로 여기는 루이스·프랭이란 보스턴의 카드商이 바로 그 행운아다. ▼연하장이나 크리스머스카드는 자꾸 인간의 숨결과 체온이 사라져가는것 같아 섭섭하다. 이름이나 서명마저 인쇄가 되니 사람의 손길은 없고 차가운 기계의 촉감만을 느낀다. 「高堂의 萬福」보단 한자의 친절이 훨씬 인간적이다. 지나가는 인사가 아닌 인정이 언제나 아쉽다. 교통과 전신·전화의 발달은 편지 쓸 기회를 자꾸 줄여 왔다. 오죽 편지를 안쓰면 체신부가 편지쓰기를 제창하고 나섰을까. 한숨이 나온다. ▼해외동포도 나날이 늘어 난다. 모국의 가족과 친지가 가장 그리울때가 지금이다. 송년해외우편 접수기간도 얼마 안남았다. 아무리 바쁜 세상이지만 글자 몇줄 적을 여유는 갖고 살아야 한다. 「送舊迎新」을 인정스럽게… 이런 구호라도 내걸고 싶어지는 때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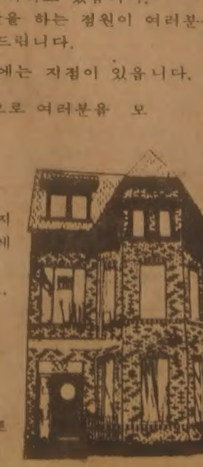
경영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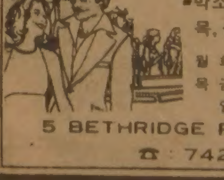
▲ 각종보석
▲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털코-트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외 각종 털제품 3000점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 스파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 보험 세탁 스토레이지 (차게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 밍크외 각종 털코-트, 자켓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 화, 수, 토
9:00~9:00 목, 금
202+208 SPADINA AVE.
☎: 363-6077
Mrs. 전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불 광 사
지도법사: 서 광 욱 스님
법회안내: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참선지도)
주 소: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223-9152

롤러스케이트
SALE 49.99
REG. $99.99
이광고를가져오시면 10% OFF 합니다

TORONTO STREET SKATE
541 PALIAMENT ST, TOR.
(TEL) 964-7767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 금, 토, 일 저녁
월 화 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Grant Brown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이한구
☎: 247-7161
1575 WESTON RD.

맛사지

DIXIE HEALTH STUDIO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 美 새防衛戰略 수립

## 전세계 海上通路안전 확보위해

◇취임宣誓하는 伊수상　이탈리아 戰後 제43차 聯政의 組閣을 마친 아민토레·판파니신임수상㊧이 1일 산드로·페르티니대통령㊨앞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로마1日UPI電送=聯合】

## 海軍、印度洋방위 力點

### 한국配置전투기등 西太平洋전담

【워싱턴聯=聯合】 美국방성은 30일 태평양·인도양및 대서양등 전세계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할 새로운 해상방위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美國內및 전세계 지상기지에 산재해있는 공군력과 항모기동함대에 배치된 해군력등 모든 海·空軍전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존·레먼해군장관과 베른·오르공군장관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그와같은 해상방위전략을 발표하고 해군성과 공군성은 이 방위전략에 따른 계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海空軍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국방성관리들은 이날 새로운 해상방위 전략에 따라 공군이 西太平洋해역을 전면적으로 담당하고 해군이 인도양해역방위에 그 역점을 두게된다고 설명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韓國·오끼나와및 필리핀에 배치된 美전투기들과 오끼나와에 4대가 배치된것으로 알려진 美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가 西太平洋해로의 방위를 전담하고、美國함대소속 항모기동함대가 印度洋방위에 주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 美、平和軍 증파說

### 레바논에 모두 2천4백명으로

【워싱턴·브라질리아AP=聯合】 레이건美행정부는 레바논정부의 공식요청에 따라 레바논에서 평화유지군으로 활동중인 美軍의 수를 현재의1천2백명에서 2천4백명수준으로 늘릴것같다고 美정부소식통및 외교소식통들이 1일 밝혔다.

이 소식통들은 미국의 평화유지군증파목적이 이스라엘군 시리아군 팔레스타인군의 레바논철수를 촉진하기위한 것이라 말하고 레바논정부가 먼저 정치적 양보를하라는 이스라엘의 요구때문에 이들외국군의레바논철수에관한합의가미국이희망하는것보다늦어지고있음을지적했다.

美행정부는 레바논 정부로부터 레바논주둔 미군을 5천명선까지 증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그절반수준인 2천4백명선까지만증원할것같다고이소식통들은전했다.

## 伊 4黨聯政 출범

### 판파니首相、戰後43차 內閣구성

【로마=NAAS=聯】 아민토레·판파니 이탈리아 수상지명자는 1일 基民黨주축으로한 4黨연립내각을 구성, 그명단을 산드로·페르티니대통령에게 제출 함으로써 이탈리아의 戰後제43차 內閣을 발족시켰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 4차례나 수상직을 역임한바있는 基民黨원로인 판파니 신임수상 (74) 은 이날 취임선서식에 앞서 TV방송을 통해 새내각명단을 발표하면서 이탈리아가 당면한가장 어려운 과제는 바로 경제문제라고 지적하고 『모든 국민들은 나라가 경제위기를극복할수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基民·社會·社民·自由黨으로 구성된 새內閣은 선서식을 갖고 공식출범 했으며 基民黨소속 상원의원인 판파니신임수상은 共和黨 출신의 지아반니·스파돌리니 前수상의 뒤를 잇는다.

## 레바논 회교指導者 줌블라트 暗殺모면

【베이루트AP·UPI=聯】레바논 좌익 드루즈 회교최고지도자 왈리드·줌블라트(33)가 1일 多國籍平和유지군소속 프랑스軍의 담당지역이며 회교도 거주지역인 西베이루트의 중심가에서 암살당할뻔 했다고 레바논경찰이 발표했다.

레바논경찰은 다른 몇몇 레바논회교단체들및 팔레스타인해방기구 (PLO) 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는 줌블라트가 이날밤10시25분(한국시간) 西베이루트시내 하이가지안·아르메니안대학정문 부근에서 부인과함께 승용차를타고 떠난직후 부근에있던 다른승용차에 장치된 폭탄이 원격조종에 의해 폭발했으나 이마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을뿐 무사했다고 밝혔다。

## 記者의 눈

### 케네디의 修身齊家

케네디家의 마지막 走者로 대통령의 야심을 불태우던 에드워드·케네디상원의원이 복잡한 家庭事를 이유로 84년대통령선거에 불출마 할것이라고 선언했다.

그가 말하는 家庭事란 카라(22)、에드워드 (21)、패트릭(15) 3자녀의 개인적 고민、신경쇠약등 신상문제에다 지금 이혼수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해부터 별거에 들어간 부인 조안 여사와의 불행한 결혼생활을 가리킨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것은 한동 이상한것이 없다고 본다』그러나 본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3 자녀를 돌보는 일』이라는 불출마의 변으로 에드워드를 아끼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서양에 그런 名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50세 知天命의 나이인 에드워드。케네디는 治國平天下할 立身에 앞서 먼저 때늦은 修身齊家를 실행해야 할 고통에 당면해 있는 것이다.

大統의 집념을 불사르던 에드워드·케네디의 불출마聲은 차라리 애절하며 인간고백을 듣고있는 착각마저 일으키게 한다.

만약 에드워드가 그처럼 어지러운 가정사정을 덮어두고 대통령에 출마한다면 그리고 출마하겠다고 발표했다면 그 반응은 어떠했을까.

아무리 이혼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東洋과 달리 父子사이에 개인주의가 팽배하며 자유의 천국이라는 미국이지만 유권자에게 어쩌면 환멸감을 심어주었을듯하다. 그를 公人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유권자들이 다수일지도 의문이다.

그는 이미 68년、바로 웃형 로버트·케네디의 젊고 아름다운 여비서 코페크니양을 자기차에 태워 드라이브하다 익사케한 소위 채퍼키딕사건으로 대통령출마의 꿈석이 어긋나기시작했다.

미국유권자들은 아직도 이 사건을 잊지않고있다。에드워드가 이번에 출마를 선언했다면 유권자들은 당장의 가정사와함께 이 사건을 되살려 입방아를 찧기시작했을것이 틀림없다。

에드워드는 당시 검찰에서『코페크니양을 구출하기 위해 세번이나 물속에 뛰어들었으나 실패했다』고 말했었다。그러나 유권자들은 밤이 샌 아침까지도 사건을 경찰에 신고치 않았다는 점과、코페크니양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사회여론、국가 지도자로서의 냉철한 판단력과 자질을 결여하고 있다는 의심등으로 72년 대통령출마가 수포가 되고 말았었다。

公人의실수는 개인의 일이건 정책수행의 공무든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미국의 풍토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또한 용서받으려는 비굴함도 삼갈줄아는 미덕을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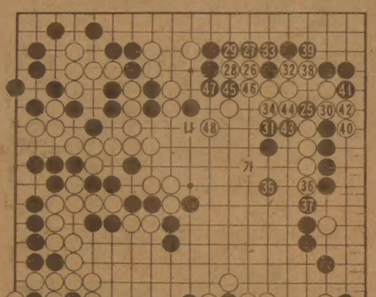
에드워드는 대통령재직시 암살된 존·F·케네디와 대통령선거유세중 암살된 로버트에이어 케네디家의 마지막 신화를 창조해줄인물로 각광을받아왔다。그는 84년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으나 88년선거의 불출마 여부는 아직 선언하지 않았다。그때 에드워드의 進路와 유권자의 반응은 어떻게될까。【崔相鎬기자】

한국일보 533·2361

## 名人戰 제14기 挑戰者決定리그

第4局 第8譜 125~148 (각5시간·덤5집반)

白(4段) 姜 勳〈1勝〉
黑(4段) 李相澈〈1勝〉



黑25로 거세게 젖힌 李4단은 입속의 담배연기를 길다랗게 내뿜었다。틀림없이 확대된 최후 일전을 고대하는듯、그리고 필살의 기백을 다짐하는듯。표현키 어려운도록 엄숙한 표정이었다。

이에 반하여 姜4단은 냉랭했다。아니 어쩌면 그렇게 보였을 뿐일지도 모르지만、좌우간 15분이나 꼼짝을 않다가 서서히 白26、28。물론 白30은 두기위한 공작이다。

하지만 일단 결심을한 李4단은 黑31로 급소를 찌르더니 계속 집중포화를 퍼붓는다。이무렵 白40이 국후에 지적된 과격한 수였다。

『우선「가」자리를 선수한다음 白「나」로 완생해 놓았어야 최소한 5집반 덤만큼 우세한 국면이었다』즉、말해서 白40은 중요한 관국에서 대세판단을 게을리한 경솔수였다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黑에게 당장 41、43을 당하고 보니 40쪽은 기껏해야 후수1집이 될까말까 한데다 거듭되는 黑45、47이 준엄무쌍하여 전체 白대마는 진짜로 위기에 봉착하고 말았다。

거듭 말하지만 白40은 패착의 가능성이 짙은 수라고 할수있다。

李4단의 전투력은 앞서 河燦錫7단과의 바둑에서 보았듯이 놀라울만한 것이다。게다가 끈기도「일품」。

자、白48까지로된 장면에서 黑은 과연 어떻게 총공격을 계속할것인지 아니면 또 어떤 최선의수단을 발견할는지。【一凡】

### 白대마 위기일발

## 얼굴 — 伊 새首相 판파니

### 首相 4차례… 上院議長도

### 올 74세… 基民黨지도자

### 경력 多樣한「작은 敎授」

아민토레·판파니 신임이탈리아수상은 과거 정부각료상원의장 그리고 4차례나 수상직을 역임한 금년74세의 노정치인으로 혼란의 와중에 빠져있는 이탈리아 정계를 원만히 수습할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고있다.

판파니수상은 2차대전후 트루먼 처칠 드골 시대이래 故 알시데·데·가스페리 수상하에서 공산주의도전배격、페니토·못솔리니 독재정권이후의 민주의회제도확립등을 위해 노력해온 基民黨의 존경받는마지막 인물중의 한사람이다。

그는 지난72년『국가에 대한 지대한 공헌』으로종신상원의원으로 지명된후 지난76년7월이래 상원의장직을 맡아왔었다。

지난달 16일까지 판파니 신임수상은페르티니대통령의 뒤를 이어 오는85년 대통령이될것으로 예상돼왔으나 그날이후 지오반니·스파돌리니수상의 5黨聯政붕괴로 야기된 혼란을 수습할수있는 유일한 인물로 부각됐다。

그의 수상지명에는 풍부한 정치경력외에도 다양한 경제학계에서의 경험도 작용했다。그는 2차대전전 밀라노기독교대학과 로마대학에서 경제학을 강의했으며 이같은 경력과 1백60㎝에 지나지 않는 작은 키로 오랫동안「작은 교수」라 불려지기도 했다。

판파니신임수상은 1908년 2월6일 피에베·산토·스테파노의 투스카니마을에서 변호사인 주세페·판파니씨의 10명의 자녀중 2번째의 아들로 태어났다。

판파니수상은 7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첫번째 부인과는 지난67년 사별、75년 17세 연하인 마리아·피아·타바자니여사와재혼했다。【로마=AP】

조 규 혁
종 합 보 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 改憲추진 正式요청

### 日自民黨 右派세력

【東京=聯合】 나까소네·야스히로 (中曾根康弘) 日本수상이 改憲문제에 적극적자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自民黨의 自主憲法추진의원동맹(회장 기시 (岸信介) 前수상)은 1일 나까소네수상에게 改憲추진을 정식으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금명간 改憲이야말로 최대의 국가적 과제가 될것이라는 강한 신념을 갖고 改憲작업을 추진하도록 나까소네수상에게 요청할 예정이다.

## 스페인 새首相 곤잘레스 選出

【마드리드UPI=聯合】 스페인下院 (재석 3백60) 은 1일펠리페·곤잘레스 당수의 사회당정부 인준에관한 7시간동안의 贊反토론끝에 곤살레스당수를 임기4년의 차기수상으로 선출했다.


# 복합문화

## 우리 함께 올바르게 남을 이해합시다

새로운 운율을 배우는 것은
새로운 나라에 오는것과 같이
쉽지가 않다.

이는 시간과 노력에
필요하다.

많은 실패 뒤에
성공이 따르는법
조화를 이루며 사는것은
어렵지마는 않다.
음악도 배움으로서 가능한것
같이 이해도 마찬가지다.

자 함께 올바르게
남을 이해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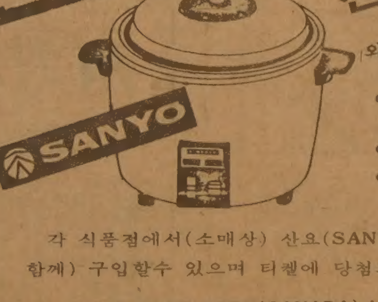
Multiculturalism Canada　Multiculturalisme Canada

Canada

## 캐나다 전역에 걸친 콘테스트 세일

기간 : 1982년10월1일~12월31일까지

### 산요 자동·보온밥솥




왜 산요(Sanyo)를 사느냐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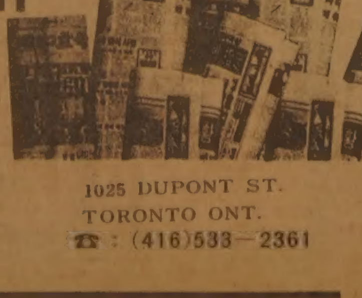
- 산요제품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의 밥솥 부분을 차지합니다.
- 가격이 항상 저렴합니다.
- 결코 타는법이 없으며 자동조절이 됩니다.

각 식품점에서(소매상) 산요(SANYO) 일본밥통을 싼 가격에(경품티켓과 함께) 구입할수 있으며 티켓에 당첨되면 좋은 상품을 드립니다.

- JAPAN FOOD CORP(CANADA) LTD. TORONTO
- PRODUITS ALIMENTAIRES DU JAPON(CANADA) LTÉ MONTRÉAL
- ASIAN FOODS—VANCOUVER

## 캐나다생활의 동반자!

## 열이면 아홉이 한국일보를 구독하는 이유



첫째 : 교포신문으로서 유일한 일간지로써 진실을 가리우지 않고 치우침이 없는 기사를 가장 빠르게 전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 다른 어느 교포신문과 비교할수 없는 방대한 조직과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폭넓은 소식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교포들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생활의 지혜를 풍부한 지면으로 상세하고 신속하게 전하기 때문입니다.

1025 DUPONT ST.
TORONTO ONT.
☎ : (416)533—2361

# 「難色」까지…愼重·熟考한달
# 經費·外交입장 고려

## 레바논 不派兵의 背景

레바논정부의 한국군派兵 요청에 대한 우리정부의「難色표명」은 한달 가까운 熟考끝에 내려졌다.

레바논정부가 지난달 6일 文昌雨駐레바논대사를 통해 한국측 의사를 타진해왔을때 외무부는 이를 極秘에 붙여 이에관한 外信보도까지 부인했다가 나흘후인 10일에 실토할만큼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처해왔다.

외무부는 레바논정부의 제의가 있은직후 우선 주변 아랍국과 非同盟그룹국가들의 반응을 알아보도록 駐在國대사들에게 긴급훈령을 내렸으며 정부는 金相浹국무총리와 외무·국방등 관계부처장관들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이 문제에대한 타당성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됐다.

우리정부가 레바논으로부터 派兵요청을받은 서방5개국 (영국 벨기에 스웨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보다 비긴간의 결정통고가 늦은것도 그만큼 조심스럽게 다뤄왔다는 것으로 풀이할수있다.

정부가 派兵치않기로 기운것은 외무부에 설치된 레바논사태대책반의 분석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종합판단에따른것으로 보인다. 외무부는 지난달 12일 孔魯明차관보를 팀長으로 李昌範中東국장을 포함한 관련4개局국장과 레바논에 근무한 간부들을 중심으로 실무대책기구를 편성하여 在外공관에서 보고해온 각국의 반응과 派兵할경우야기될 문제점및 국내여론등을 수집분석해왔다.

대책반의 한관계자는 2일 否定的인 결론을 내린이유에 대해 『국내외사정을 고려하고 국민들의 여론에 귀를기울였다』고 막연히 설명했을뿐 속시원히 결론을 내릴수없는 외교문제의 복잡성을시사했다. 이관계자는 『妙齡의 처녀로부터 청혼이 들어왔는데 이청혼을 받아들여야할지 상당기간 고심끝에 청혼을거절했을 경우 거절이유를 반드시 밝혀야만 하느냐』고이 어려운사정을 털어놨다.

또한 소식통은 『우리정부가 취한조치는 레바논의 제의를 거부한것이 아니라 우리정부의 입장에서 레바논의 평화회복과 복구사업을 도울수 있는길은 현시점에선 派兵보다는 다른방법을 모색할수밖에 없다는것이며 상황이 변화하면 派兵도 불가능한것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레바논정부의 한국군 派兵요청에 뒤이어 미국에서도 우리정부에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줄것을 당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韓·레바논 친선관계뿐만 아니라 韓美우호관계까지를 고려, 제반문제를 검토했으나 派兵으로 인한 일부 제3세계국가와의 외교적 부담과 誤解등을 초래할 소지가 없지 않으며, 무엇보다 현상황에서는 派兵이 우리형편상 적절치못하다는 판단을 내린것으로 보인다.

李範錫외무장관은 그동안 리처드·워커 駐韓美대사와 수차례에 걸쳐 은밀한 접촉을 갖고 이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미국에서도 우리측의 입장에 이해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는 派兵아닌 다른방법으로 레바논의 평화유지에 寄與하기로 방침을 내린데 대해 분명한 이유를 설명치않고있지만 그동안 국내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점과 국민들의 반응이 초기에는 긍정적이었다가 시간의 흐름에따라 부정쪽으로 굳혀진점등이 크게 작용한것 같다.

전문가들은 ▲현재 레바논政況이 유동적이어서 한국군이 平和유지군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할지 의문이고▲현지에서 본의아니게 회교左派민병대나 PLO잔존세력과 충돌사태가 발생할경우 여러가지 복잡한문제가 발생하며▲우리나라와 관계강화를 희망하는 일부 아랍국가들이 派兵에 懷疑的반응을 보인점▲外軍철수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점도간과할수없는요인으로볼수있다.

한국군의 派兵은 어떤 의미에선 하비브特使가 추진중인 外軍철수협상과 직결됐다고도 할수있기 때문이다. 하비브特使는 레바논에 주둔하고 있는 이스라엘, 시리아및 PLO軍을 철수시키기 위해 치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긴했지만 레바논이 우리나라의국제적역할을 인정했고 우리역시 레바논의 조속한 평화회복을위해 다른방안을 강구중이기때문에 한국과 레바논, 나아가서 한국과 中東관계가 이를 계기로 더욱 긴밀해지는 轉機가 될것으로보인다.

【李在武 기자】

## 여건 多角검토 輿論도존중

◇베이루트는 서서히 질서를 회복해가고있으나 아직도 시내 곳곳에서는 사진처럼 마스크를쓴 무장대원들이 활약하고있다. 【外紙】

# 「國防費삭감」國內문제 반영
## 협력의 새轉機될수도

派兵에 따른 우리 안보상의 문제와 북괴의 문제점등을 지적한바있다.

이러한 문제점외에도 현재 하비브美中東特使의 레바논당사국뿐만 아니라 주변국에도 설득작업을 펴고있다.

이스라엘은 自國軍의 철수로 이스라엘의 安保가 위협받아서는 안된다며 레바논과 평화조약을맺고 레바논이 이스라엘을 승인해주길 희망하고있으며 시리아는 레바논의 緣故權을 주장하며 이스라엘의 先撤收를 요구하고있다.

또한 殘存PLO軍은 자신들의 철수로 이스라엘과 右翼민병대에 의한 제2의 팔레스타인대학살을 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얽히고 설킨 레바논의 복잡한 국제관계를 풀기위해서 하비브特使가 利害당사국모두에게 불만없는 妙案을 내놓지않는한 레바논派兵은 문제의해결보다는 오히려 국제분쟁의渦中에 말려들 위험성이 높을게 분명하다.

이밖에도 최근 국회에서 전례없이 국방예산을 대폭삭감하면서까지 긴축재정정책을 펴도록 하는 마당에 막대한 유지비가 소요되는 海外派兵이 우리입장에서 타당한가하는 국민들의 반대소리가 派兵에 쐐기를 박은 또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것으로 『레바논 派兵문제는 일단락됐다』면서도 『국제정세란 고양이 눈처럼 변화무쌍한 것이기 때문에 레바논의 안정을 위해 우리가 기여할수있는방법도달라질수도있을것』이라고여운을남겼다. 비록한국이 레바논에 派兵

## 多國籍평화군駐屯 두달
# 레바논의 現實은…

레바논정국의 안정과 치안유지를 위해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등 3개국 평화유지군이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파병된지도 2달을 넘어섰지만 레바논정국은 아직 혼란의 미궁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다.

베이루트는 전쟁의 상처가 서서히 아물어가고있으나 그외의 지역 특히 중부산악지대에서는 좀블라트가 이끄는 드루즈派회교도들과 팔랑헤기독민병대간의 유혈충돌이 끊이지않고 있다.

이두적대세력들은 이스라엘군이 점령하고있는 중부산악지대에서 지난 5주간 계속산발적인 전투를벌여 쌍방간에88명이상의 사상자를 냈다. 레바논정부군은 아직 이들의 싸움을 저지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반면, 반정부적 좌익회교도들이 정부군병영을 공격하는 사례가늘고 있다.

1일에는 드루즈派지도자인 좀블라트가 西베이루트의 프랑스군 담당지역에서 폭탄공격을 받았으나 생명은 건졌다.

4명이 죽고 38명이 부상한 이 사고는 다국적평화유지군이 파견된이래 베이루트에서 일어난 대형참사로서 레바논정국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하고있다.

치안능력이 부족한 제마엘 레바논정권은 지난달 기존파병국이외에 한국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등 서방5개국에 파병을 요청했으나 이들 나라들은 거의 거부 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첫번째로 반응을보인 네덜란드정부는 유엔테두리밖에서는 자국군을 파병할수없다는 공식거부의사를 레바논정부에 통보했으며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거의 모든나라들이 파병이 어렵다는입장을 외교경로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벨기에는 경비를 지원해 줄 경우에 파병할 의사가 있다고만 밝혔을 뿐이다.

## 美의 對中東평화案 難關에
## 首都만安定, 流血충돌 여전

영국은 영국군이 포클랜드 키프로스 홍콩등 세계각지에 파병하고 있기때문에 추가파병은 어렵다는입장이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자국군의 해외파병한도가 잠정유엔군 (UNIFIL) 참여로인해 한계에 걸려있어 레바논파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있다.

이같은 파병요청국가들의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반응은 근본적으론 불안한 레바논사태에 휘말리고 싶지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현재 파병한 1천2백명의 미해병 대규모를 2천4백명선으로 늘리려는 계획아래 프랑스 이탈리아와도 평화유지군의 증파문제를 논의중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도 모로코 GCC (페르시아만국가연합) 6개국등이 파병용의를 밝히고는 있으나 이들은 중동회교세력권내의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묵시적 동의가 없는한 오히려 혼란만을 부채질할 염려가있어 레바논정부는 아무런반응도 보이지 않고있다.

사실 미국의 구상에서 나온 평화유지군 추가배치계획은 예상외로 난관에 봉착함으로써 레바논내의 외국군철수를 지점으로 한 미국의 對中東평화·방안도 시련을 겪고 있다.

미행정부는 레바논과 주변국에 하비브, 드레이퍼등 특사들을 파견, 레바논영내에 주둔하고 있는 이스라엘군 시리아군 팔레스타인해방기구무장세력등 외국군의 철수를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결론을 얻지 못한채 공전만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미행정부는 연말까지 외국군의 철수를 완료시킨다는 대드라인을 설정해 놓았으나 현재로서는 몇개월가량 더 연장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놓여있다.

【崔海雲 기자】

# 「農·工시대」여는 中共
## —全人代서 밝힌 경제開發 청사진

인사이드

현재 중공의경제는 어느정도 심각한것일까。趙紫陽수상은 지난달30일 야심적인 제6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1981~1985년) 이란는것을 발표했다.

이기간동안 공업·농업의 연평균경제성장률을 「4%확보, 5%목표」로 한다는 이경제계획은 지난해초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수정작업을 거치는 바람에 늦어져 이번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全人代)에서 발표됐다.

이 경제계획은 2천년까지 농·공업총생산량을 4배로 증가시키기 위한 기간산업의 육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중공의 청사진은 이 기간이 바로 90년대의 고도성장을 예비하는 경제토대 구축기간으로 여기고있다.

중공은 더나아가 제7차기간 동안의 성장률을 5~6%, 90년대에는 9%로 추정하고있다。이에 비해 4~5%의 비교적 낮은 성장률은 목표로 하고 있는 이번계획은 과거의 높게 잡았던 경제계획이 실패한 것으로부터 교훈을 얻었기 때문인것이 분명하다.

어쨌든 이번에 밝혀진 계획의 주요골자는 ①도로망의 정비②석유·석탄등 에너지개발③신규대형프로젝트의 건설등으로 이 계획의 성공여부는 외국의 자본과 기술도입문제 그리고 이를 담당할 인재양성에달려있음은 두말할 필요도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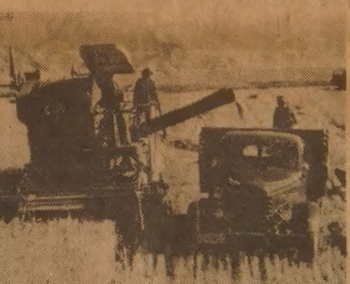
도로망의 정비는 각지에 흩어져 있는 경제력을서로 연결시키는 즉 「點」의 상태에서 「面」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중공의 劣惡한 도로사정은 중공업성장을 크게 저해하고있다고 자주 지적돼왔다. 원자재와 제품을 수송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대개가 철도이기때문에 물리는 물량을 미처 처리하지못해 철도가 마비되는 사태가 각지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계획은 2천㎞의 철도를 새로 건설하고 항만시설을 대폭 확충하는한편 각지 도로의 네트워크를 과학적으로 조정하는것으로 돼있다.

도로망의 정비는 또 에너지개발과 공업도시건설을 순조롭게하여 경제성을 높일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중공경제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게 될 석유·석탄등 에너지개발은 3가지 난제의 극복과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3가지 난제란 중공지도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①중요자원들이 기술발전의 지연으로 개발이안되고 있으며 ②생산지와소비지사이의 도로시설이 나빠 수송이늦고 ③소비단계에서 낭비가 많다는 점등이다.



◇중공농촌의 추수현장。중공은 각분야의 現代化에 박차를가하기위해 이번의 全人代를통해 경제개발계획이란것을 발표했다。그러나 이를 달성하기위해서는 서방경제의 지원이 불가결한것이 현실이다。

## 西方과협력 技術도입
### 2천년代엔 총생산 4배로 策定

전력의 개발은 중공이 내세우고있는 90년대의 고도성장과 이에따른 생활수준향상의 선결조건으로 지적되고있다.

중공은 이계획이 순조로울경우 신규 대형프로젝트 건설계획에따라 외국자본과 기술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것으로 믿고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소련과의 관계정상화로 소련의 자본·기술도입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공업의 개조작업도 병행되고 있으나 전문가들 사이에는 『노후공장의 설비를 부분적으로 개조하는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趙紫陽은 全人代에서 51억元 (25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감수하면서 수출보다는 수입 특히 기술수입에 역점을 둔 무역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출품으로는 섬유 경공업제품 공예품 기계류 전기제품등을 꼽았고 수입품으로는 새로운 기술과장비를 강조하기도했다.

이계획의 내용은 또 85년까지 곡물수확량을 80년보다12.6%늘어난 3억6천만톤으로 잡고있으며 이기간내에 10억6천만명 수준에 도달할것으로 전망되는 인구증가율을 연 1.3% 미만으로 유지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공은 올해 사상최고의 수확량을 기록, 곡물 3억6천6백만톤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공이 이와같이 야심적이지만 4~5%경제성장률이라는 비교적 낮은목표를 정한 것은 바로 경제계획의 실패가 사회불안과직결된다는 과거의 경험을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朴來富기자】

# 鳶과 口音

메아리

우리나라에는 人間文化財(重要無形文化財 기예능보유자)가 72종에 1백66명있다. 64년에 처음 지정되기 시작한 이래로 그동안 전통예술과 民俗의傳承에 이들이 기여한바 크다. 名人과 名匠들을 받드는 이上席에 凡人·凡匠들을 함부로 올려앉힐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꼭 보존이 필요한것은 그 종목의 확대에 조금도 인색할것 없다. 얼마든지 발굴해나가야 할것이다. 이런 뜻에서 人間文化財의 종목에 추가 지키고싶은 것이 두가지 있다. 鳶과 口音이다.

연날리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대중적인 민속놀이의하나다. 몇몇 技能士이나 製作技의 專有物인것도 아니요 지방따라 다르지도 않다. 싸늘한 겨울하늘에 하얀연들이 가득히 떴이고 얼레에 감기는연이 『鳶風』에 일렁지리던 그바람의技藝가 지금 자꾸 사라져가고있다. 우리나라의 연날리기는 기록상으로는 新羅시대의 金庾信이 처음이라니까 1천3백년전부터인데 日政때 민족의식을 고취시킨다고 억압하여 시들해졌다가 6·25후 한국일보등이 앞장서 전국경기대회를 연기도했으나 지금은 釜山, 忠武, 安東등 몇군데서 음력 正初의행사로 겨우 연명을 해올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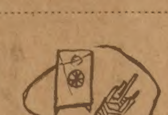
기원전 4세기에 그리스에도 있었다는 연은 어느 민족에나 있는것이지만 종류만도 약80가지가되는 우리나라연은 단연다른나라것을 압도한다. 외국연은 대개鳥類나 魚類모양으로 높이올리기만 하지만 우리것은 가운데방구멍이뚫려연실의 조종에따라 左右의 水平으로 헤엄쳤다가 急轉直下와 急上昇을하는등 에어쇼를부린다. 연실을 엇걸어 끊어먹는 空中戰을 한것도 우리나라뿐이다.

朝鮮王朝에서 연날리기가 성행한것은 英祖代부터라고한다. 王은 어느날 侍臣에게 『요즘은 연날리는것을 볼수없으니 백성들이 무슨 병이라도 났단말인가』하고 물었다. 이 소문이 퍼지자 마을마다에서 연들을 하늘 높이 올렸다. 지금은 백성들이 병난것이 아니라면, 연을 날리기에는 전선줄이 너무 어지러워서인가, 빌딩이 너무 높아서인가.

다행히 盧裕相옹 (한국일보 11월21일자보도) 같은 연의 名人이 남아있는것은 큰 위안이된다. 盧옹은 11세때 自作鳶을 띄운이후 약20년전부터 본격적인 연을 만들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5만개이상을 제작했다. 요즘은 국내에서보다는 오히려 일본, 미국, 동남아등지로나다니며 우리 鳶을 소개하는 일에 바쁘다。그는 한국 鳶의 마지막 匠人이다.

연날리기는 음력 설날부터 정월대보름까지가 철이었다. 보름이 지나고나면 厄을 날린다고 해서 얼레에 감긴 줄을 모조리 풀어 연을 날려보내 버렸다. 연은 하늘끝으로 멀리멀리 사라져갔다. 이 厄鳶 날리듯 건전한 민속의 명맥이 영 끊어질수는 없다.

이번에는 口音.



金聖佑
<編輯委員>

晋州에서는 金壽岳씨 (女·56세)라면 알만한 사람은 다안다. 金씨는 67년에 이미 人間文化財로 지정된 사람이다. 지정된 종목은 晋州劍舞로 혼자만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였다. 金씨를 찾아갔을때 그는 자기집이 없어서 晋州文化館의 조그만 창고 한칸을 빌어서 피난살이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 人間文化財로서의 체신도 체신이거니와 그보다는 제자들에게 자기 기능을 전승시킬 장소가 없는것이 한스러워 道에 진정까지 했는데 10년째 아직도 이런 생활이라고 한다. 한때는 『南江물이 말랐으면 말랐지 金壽岳이한테 돈은 안떨어진다』고 소문난 시절도 있었다는 金씨다. 이 金씨가 더욱 섭섭한것은 자기는 劍舞보다는 口音이 더 長技인데 이것으로 人間文化財 지정을 받지 못한것이다.

口音은 우리國樂에서 춤의 伴奏같은것이다. 살풀이나 굿거리춤등을 출때 장구를 치면서 입으로 흥얼흥얼 소리를내어 장단을 맞추는것이 口音이다. 춤은 장구만 가지고는 맛이 없고 口音이 곁들여야 신이 난다. 金씨는 口音 몇토막을 들려준다. 노래하는것 같기도 하고 읊조리는것 같기도하고, 대사가 있는것 같다가 때로는 그냥 콧노래같다가하는 소리가 아득한데서 물결치듯 흘러나온다.

이 口音으로는 지금까지 人間文化財로 지정받은 사람이없다. 口音을 잘하는 사람이 더러 있지만 李東安, 李梅芳씨등의 名舞家들에게 물으니 金壽岳씨의 自慢이 自慢이 아니라고 했다. 金씨가 口音을 하면 사람들은 춤추는 사람을 보지 않고 金씨의 입만 쳐다본다는 것이다.

## 泰 대학총장 선거로 뽑아

★敎職員·학생들 참여

아시아최대의 개방대학인 타이의 람캄행대학은 30일 새로운총장선거를를 실시하는데 대학당국은 유권자인 1천5백명의 교수, 3천명의 직원및 60만명이상의 학생중 교수·직원의 90%이상과 3만여명의 학생들이 이번 선거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

그런데 람캄행대학에는 60만명이 학생이 등록돼있으나 그중 5만명정도만이 정상적으로 강의에 출석하고 있다고。

◇少女와 독수리 프랑스의 한 농촌에사는 올해 5살난 루시양은 부친이 기르고있는 잘훈련된 독수리가 마치 보모처럼 따라다니며 돌보고있다고。【키스톤=聯】

이 대학의 교수·직원및 학생들은 각각 별도로 총장예비선거에 임하게돼 있으며 각 그룹에서 선출된 총장후보자명단은 대학위원회에 제출돼 오는12월9일 최종선발절차를거쳐 정부의 승인을 받게된다. 【방콕=聯】

## 海外토픽

### 女敎師 옷벗겨

★中共 黨幹部 두아들이

중공湖南省의 한 지구당간부의아들형제가 최근 미혼의 여교사를구타하고 옷을벗기는 행패를 부렸으나 이들은 처벌받지 않았을뿐만아니라 오히려 두고보자는식으로 더욱 위협하고있다고 중공의 청년보에 실린 독자투고가 호소.

호남성의 한학교에서 날아온 이투고는 한시골생산집단의 공산당 지구당서기인 호·추·루에이라는 간부의 아들2명이 21세된 한 여교사의 집에 들어와 돼지와 재봉틀을 훔쳐가는 행패를 부리다가 지난10월7일 출근길의 이여교사를 구타하고 옷까지 벗긴다음 학교까지 따라와 간신히얻어입은 옷을 또다시 벗기는 난동을 부렸다고 주장.

이때문에 손가락이 부러지고 온갖 창피를 당한 여교사는 출근도 못하고 있으나 이들의 부친인 호씨는 아들들의 행위를 방해하지 말라고 호통치면서『여자가 결혼하는날 두고보자』고 벼르는 중이라고。【北京=AP】

### 波 배우協會해체

★軍政、放送출연 拒否로

폴란드 軍政당국은 1일 전국배우협회가 국영라디오및 TV방송출연을 거부하고 있는 배우들을지지했다는이유로이기구를해체。

폴란드 방송들은 대부분의 배우가 계엄통치에 항의、출연을 거부함에 따라 오랫동안 프로그램 제작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바르샤바=聯】

● 백학같이 우아한 미!
●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웨딩 드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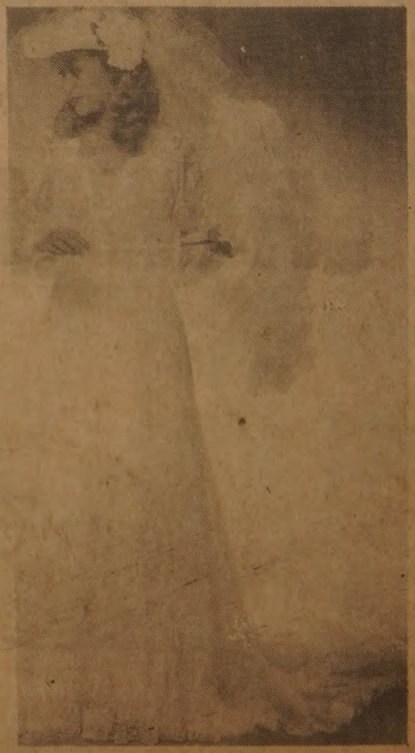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청첩장등.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생애 최고의 순간들을 추억으로 담을 사진을 책임지고 촬영드리며 기타 결혼을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실비아·원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 점수분포 上位圈 더 많을듯

## 어제 大入學力考査 大學·學科선택 어려워져

## "교육정상화 위해 쉽게 出題"

### 平均점수 例年보다 4~5점 높아질듯

2일 실시된 83학년도대학입학학력고사의 성적은 예년에 비해 평균점수가 다소 높고 따라서 득점분포도 상위권이 많을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하오 대입학력고사출제위원장 金豪權교수(嶺南大)는 『이번시험문제는 난이도를 조정, 예년보다 쉽게 출제했다』고 밝히고 『그 이유는 학력고사가 단순히 선발에 목적을 두는것이라면 득점의 평균치를 중간에 두는것이 정상이지만 이번고사는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것이기때문에 점수의 평균치를 조금위로 잡도록 쉽게 문제를 냈다』고 밝혀 이번학력고사의점수가 예년보다 다소 높고 득점분포에서 상위그룹이 하위그룹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번 학력고사의 평가책임을맡고있는 金純澤교수(서울師大)도 『점수분포가 광범위하게 흩어지도록 난이도를 조정했으나 득점분포가 고득점에 가깝도록(貧的분포) 배려했다』고말해 이같은 예상을 뒷받침했다.

한편 입시관계전문가나 일선학교교사들은 『이번 학력고사는 과목에따라 어려운과목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볼때 쉬워 작년보다는 평균4~5점가량 높아질것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83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에서는 수험생들이 대학과 학과선택에서 예년보다 한층 어려움을 겪게 될것으로 보이며 특히 명문대와 인기학과를 지망하는 수험생들은 치열한 경쟁과 이에따른 극심한 눈치작전이 예상된다.

입시 전문가들에 의하면 배점이 많은 수학의경우 작년에는 계산을 요하는 문제가 많아 시간이 모자랐고, 과거 예비고사 문제와 스타일이 전혀다른 뜻밖의 문제가 많아 어려웠으나 금년에는 평이한 문제가 출제돼 4~5점정도 높아질것이 예상된다는것.

또 영어도 마찬가지로 본어와의 난이도 조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문제가 쉬웠다고 지적하고 특히 예문(地文)은 거의 중2~3학년수준의 실력이면 알아 볼수있는것으로 출제해 종전보다 점수가 높아질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국어는 예년보다 어려워 점수가 약간 낮아질 것이나 전과목으로 볼때 비교적 쉽게 출제돼 평균 4~5점이 높아질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따라 내년도 대학입학에는 ◀평균점수가 예년보다 다소 높아지고 고득점자의분포도 커지게되므로 상대적으로 명문대학과 인기학과의경쟁률이 자연히 높아지게 될것이며 ◀지난해와 달리 복수지원이 단수지원으로 바뀌어 선택의 폭이 좁아졌으며 ◀대부분의 대학이 모집단위를 계열별에서 과별로 바뀌어 세분화해 학과간 격차가 벌어져 선택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거의 모든대학이 내년부터 2, 3지망에대한 감점제를 폐지해 고득점자가 1지망에서 2, 3지망으로 밀려내려오고, 대학의 모집인원이 (증원폭이 좁아진데다가) 대폭 증가한 재수생을 포함, 자연증가분을 절대적으로 수용할수없다는것도 어려움을 더하게하는 요인중의 하나이다.

한편 문교부는 이번 학력고사의 결과를 예년보다 더욱 세분해서 발표, 수험생들이 대입정보로 활용할수있도록 할 방침인데 고사결과는 남녀 등급별에서 지방별 특징별 입원분포까지 세분해발표키로했다. 【李鍾九기자】

### 李文敎, 고사장들러

李奎浩문교부장관은 2일상오 83학년도 대학입학학력고사가 실시되는 동도중학교와 창덕여중에 각각 들러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鄭泰秀차관도 덕성여중과 청운중학교를 찾아 고사장을 둘러봤다.

### 시험중 女高生졸도 3시간후 恢復

【淸州】 2일 상오 11시15분께 대입 학력고사 충북지구 제8고사장인 淸州여중에서 2교시 시험을보던 淸州市一信여고 3년생 金明玉양(18·淸原郡北一面禮南里)이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져 淸州시내 郭내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한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金양은 이날 하오2시30분께 의식을 찾았으나 이미 3교시 시험지까지 공개된후라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聯合】

◇한점이라도 더… 수험생보다도 고사장 밖에선 두 학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이 한층 초조하고 진지하다.

## 缺試率높아 3.9%

### 전과목 正答공개…64만7천9백22명 응시

83학년도 대학입학 학력고사가 2일 상오 9시부터 전국31개 시도의 5백26개(뉴델리포함) 고사장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이날 대입학력고사에서는 전국지원자 67만4천1백98명중 3.9%인 2만6천2백76명이 결시, 모두 64만7천9백22명이 시험을 치렀는데 이같은 결시율은 지난해 3%보다 0.9% 늘어난 것이다.

서울시의 결시생은 지원자 19만6백6명의 3.7%인 7천1백46명이다.

이날 수험생들은 예년과는 달리 영상의 포근한 날씨속에 상오9시부터 낮12시50분까지 상오고사(1·2교시)를 치렀고 이어 1시간동안의 점심시간을 가진뒤 하오2시부터 하오4시50분까지 하오고사(3·4교시)를 끝으로 시험을 모두 마쳤다.

### 뉴델리 考査場서 選手28명이 應試

이날 학력고사사상 처음으로 인도뉴델리에는 해외고사장이 마련돼 제9회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한 28명의 선수들이 별도로시험을치렀다.

### 맹아15명·농아10명 別途로 시험치러

또 서울제5지구 25고사장인 국립서울맹학교(서울鍾路區新橋洞1)에서는 전국에서온 15명의 맹인응시생들이 점자로된 문제지를받아 시험을치렀고 국립서울농아학교에서도 서울출신농아응시자 10명이 따로 시험을치렀다.

### 시험후 問題紙공개

이날 문교부는 매교시시험이 끝날때마다 문제지를공개했으며 하오6시40분에는 전과목의 정답을 공개했다.

## 父子함께 實力겨뤄

### 釜山선 停電소동 촛불켜고 試驗

○…제주 西歸高에서는 47세의 金회창씨(濟州市濟州洞 태양마을)가 막내아들 금산군(17·西歸高3년)과 함께 실력을 겨뤄 이채를 띠었고 釜山지구 제3고사장인 啓春中과 제4고사장 東萊中에서 소년원에 수감중인 4명의 수험생이 교도관의 인솔로 시험을치렀다.

또 이날상오9시30분께 釜山31고사장인 東亞中에서선 갑자기 정전되는바람에 일부교실에서 촛불을켜놓고 시험을 보기도했다.

○…이날상오8시께 馬山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한 昌寧女高출신 2백30여명이 수험장을 찾지못해 애를 태우다 교통안내원들이 트럭과택시를 동원, 고사장까지 무사히 태워다 주기도했다.

○…시험전날밤연탄가스에 중독됐던경북俠館邑순심여고 3년 朴미자양(18)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이날아침 택시편으로 고사장인大邱경북여고에 도착, 침대에 엎드린채 시험을 치렀다.

또 15일전 교통사고로 전신골절상을 입은 경상여상 3년 성해숙양(18)은 답안지를 작성할수없어 감독관이 대신 답안표기를 해주어 무사히 시험을 마쳤다.

○…蔚山女高에서는 동료수험생들이 왼쪽다리 골절상을입은 유현재군(19·학성고 3년)을 교문앞에서 고사장까지 부축해주어 학부형들이 박수를 쳐주었고 南海고출신 朴창률군(19)은 1일하오 갑자기 급성맹장염을 일으켜 晋州제중병원에입원, 장학관과 경찰관이 입회한 가운데 시험을보았다.

### 5行뉴스

◀새마을호乘車券발매소擴大 철도청은 새마을호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승차권 구입편의를위해 2일부터 永登浦·淸凉里·水原·大邱·海雲臺·鎭浦역등에서도 새마을호 차표를 판매키로 했다.

◀행인치어숨지게하고뺑소니 【全州】 2일새벽 1시30분께 全州市西老松洞 중앙시장앞길에서 번호를 알수없는 승용차가 30대 남자를 치어 숨지게한뒤 달아났다. 【聯合】

◀시비끝에 친구찔러 치사 【釜山】 1일 하오7시께 부산시北區毛羅洞279의3마산식당옆 공터에서 정동근씨(29·부산北區毛羅洞279)가 시비끝에 친구인 윤덕현씨(33·北區毛羅洞285)를 과도로 가슴을 찔러 숨지게 했다. 【聯合】

## 仁川항만청장 連行

### 警察 輸入예인선 싸고 收賄혐의

### 부두과장·운영계장·興海해운代表등도 조사

치안본부수사대는 2일 仁川해운항만청장任裕淳씨(52)와 부두과장 金益煥씨, 부두과운영계장 金泰坤씨등 3명의 공무원과 興海해운대표김준경씨를 연행 조사중이다.

경찰에의하면 任청장은 興海해운이 수입한예인선 2척에대한 예선사업계획 변경승인을해주고 대표 김씨로부터 지난6월과 10월 두차례에걸쳐 2백만원을받았고 金과장은 20만원 金계장은 10만원을 각각 사례금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들의 금품수수사실이 밝혀지는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과 뇌물증여등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 協成재단 理事長 承認취소

【大邱】 속보=학교법인 협성교육재단(이사장 申鐵旭·59)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던 대구시교위는 2일 이사장 申씨가 지난80년 8월이후부터 지금까지 산하 각급학교 회계자금중에서 7억7천만원을 불법으로 재단에 전입시켜온 사실을 밝혀내고 이책임을물어 이사장 申씨의 취임승인을 취소했다.

시교위는 또 사립학교법및 관계법규를 위배하면서 학교비를 변태 유용 또는 부당계약등의 사무처리를 해온 이재단산하 13개중고교중 11개 중고교의 현직교장11명과 서무과장12명 관리과장 2명등 재단관계자를 포함, 모두25명의 관련자들을 감봉 3개월이상의 중징계조치토록했다. 【聯合】

## 牧師등 넷拘束

### 거짓증명떼줘 旅券받게

서울시경은 1일 대한예수교장로회(협동) 총회장 吳京信씨(54·은성교회목사·서울江西區傍花1洞249의21) 鄭勳成씨(41·江南區大峙洞銀馬아파트31동505호)·顯室민종중앙교회목사 李洙東씨(36·서울中區萬里洞20의31) 세계부흥선교회사무국장 鄭永昇씨(45·서울冠岳區奉天5洞101)등 4명을 여권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吳씨는 지난 2월부터 11월초까지 목사李씨와 朱모 張모씨등에게 교역자 재직증명서및 출장증명서용지 34장을 53만원을받고 넘겨줘 부정여권발급에 사용케했는데 지난10월16일에는 李모씨(27·상업·서울江東區暮室시영아파트)등 2명에게 「선가대원」으로 여권을 발급받게 해주었다며 50만원씩을 받았다는것.

목사李씨는 吳씨로부터 용지21장을 40만원에사들여 江南교회목사 鄭씨에게 1백5만원에 넘겨주었으며 목사鄭씨는 이용지를 다시 사무국장 鄭씨에게 1백5만원에넘겨준뒤 14명의 해외여행희망자로부터 추천서발급·부흥선교회 입회비조로 1인당45만원씩 모두 6백30만원을받았다는것.

## 嶺東지방 暴雪

### 3시간만에 대관령 14·原州 20㎝

【江陵·原州】 강원도 대관령등 영동산간지방에 2일하오 최고적설량 20㎝의 폭설이내려 영동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각종차량이 거북이운행을 하고있다.

중앙기상대 江陵지대에 의하면 이날 12시30분께부터 눈이내리기시작, 하오3시30분현재 原州지방의 20㎝를비롯, 대관령에 14㎝ 춘천에 3㎝등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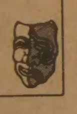
한편 중앙기상대는 이날하오 2시30분을 기해 영동산간지방에 대설주의보를 내렸다.

이날 갑자기 많은눈이 내리자 대관령일대 영동고속도로를 운행하던 각종 화물차량들은 미처 체인이나 스노타이어를 준비하지못한채 거북이 걸음으로 서행해 큰불편을받았다. 【聯合】

## 스와힐리語

### 케냐 土着語 배우고 온 金閏珍교수

### "아프리카는 돈벌이보다 同伴者로"



「미미 나쿠 펜다 나사」 암호도아니고 우주인들의 대화도아니다. 요즘 한창 우리나라가 진출하고있는 아프리카 토속어인 스와힐리어(Swahili)로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뜻이다. 우리에게있어 아프리카는 스와힐리어를 듣고느끼는 만큼이나 생소하고 모르는 것이 많은 대륙이다. 최근케냐의 나이로비대학에서 스와힐리어를 공부하고 돌아온 外大 金閏珍교수(37·사진)는 진출에앞서 아프리카에대한 선입관을 버리고 공부하는자세가 필요하다고 충고한다. 아프리카를 끝없이 이어지는 밀림속에서 반나의 흑인들이 리드미컬한 춤을추고 맹수가 포효하는 낭만의대륙으로 알아서는 실망과함께당혹감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한다.

金교수도 77년 케냐유학을 떠날때까지만해도 아프리카를 그렇게생각했다. 아프리카로 향하는 비행기안에서 해꿎이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나 金浦공항보다 뛰어난 시설을 자랑하는 나이로비공항에 내린순간 그동안의생각이 얼마나 그릇된 것인가를 절감했다.

金교수는 61년 金燦三교수의 아프리카여행기를 읽고 아프리카를 막연히 동경했다. 77년 대학에서독일어를 가르치다 정부에서 아프리카어를 전공할 국비장학생을 선발할때 자원했다.

스와힐리어는 동아프리카 1백50여 부족이 사용하는 언어로 영어와 함께 케냐의 공용어. 말하자면 한글과 같은 아프리카의 고유언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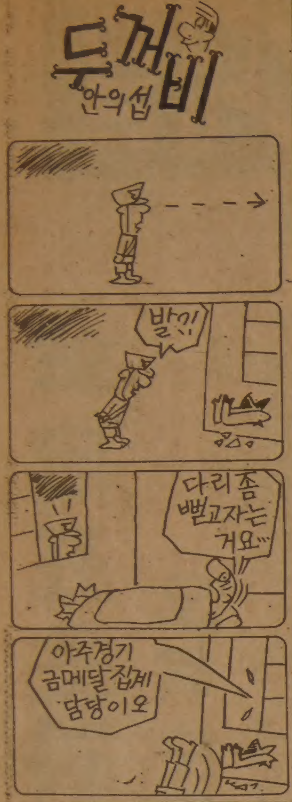
『아프리카는 중동붐이 사그러질즈음의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걸수있는 곳이지요. 내일을 위해서라도 아프리카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그가 다녀온 케냐만 해도 뛰어난 자연공원과 차와 코피의 생산으로 유명하다. 북쪽에있는 수단에서 최근 석유가 쏟아져나와 케냐의 북쪽지방도 석유의 매장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아프리카는 무진장한 자원의 덩어리다.

그러나 金교수는 돈벌이의 대상으로만 아프리카만을 생각말고 그들의 고유문화와 사상을 이해하는 파트너가돼야한다는 면에서 아프리카를 봐야한다고 강조한다.

『우리도 그들도 지난날 남의 식민통치를 받지않았읍니까. 다시는 그런 아픔을 서로가 어느면에서라도 느껴서는 안됩니다』

어느덧 아프리카의 진정한 대변인이 돼있는 그를 발견했다. 【徐華淑기자】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묵거리
B536-1692
H245-3539

주택, 토지, 기업체
부동산 매매
The Permanent
Paul Kim 김 평
Sales Representative
Canada Permanent Trust Company
1560 Bayview Avenue Toronto,
☎ : (B)488-2444 (R)759-4560

82년도 인벤토리 스페샬
KAWAI PIANO·ORGAN 대매출!

날로 교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발전하고 있는 저희 회사에서는 파격적인
염가로 교민 여러분께 다시 대매출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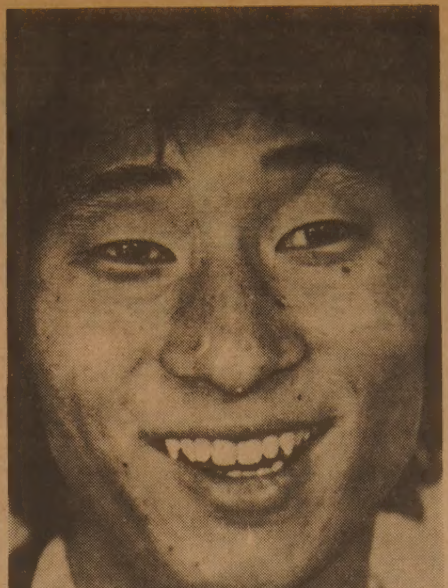
단기분할 판매실시 (3~6개월)
이 기회를 꼭!

◎가와이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읍니다.
◎가와이 피아노는 일본정부가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가와이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Upright 피아노를 생산합니다. (Anthony Liversidge 기고 "House & Garden"에서)
◎가와이 Keyboard Centre 는 유일한 한국인의 딜러이며 항상 교민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하고 있읍니다.

KAWAI KEYBOARD CENTRE
MARKHAM PLACE MALL (Don Mills & Steeles)
Tel: (416) 881-8230
9350 Yonge St. (Hillcrest Mall)
Tel: (416) 883-9407
President · LUCAS YUN 윤 호 섭
Sales Manager · ALLEN DUMA

# 치타처럼 빠른 「陸上스타」

## 金따낸 「아시아의 스프린터」 張在根



◇한국陸上의 샛별 아시아 육상단거리에 혜성처럼 나타난張在根. 2백m 결승전서 8년만에 아시안게임 신기록을 세우며 金메달을 차지했다.

바람을 가르는 힘찬팔놀림. 피스톤처럼 뻗는 두다리. 키183·5㎝, 몸무게79㎏. 미디움·스타트의 불리를 극복하고도남는 무서운 가속력.

張在根이 1백m서 銀메달을 따냈을때 2백m 金메달은 이미 보장된것이나 다름없었다.

풀·스피드로 달릴때의보폭이 무려2m55. 그는 한마리의 치타였다. 그처럼 넓은 폭으로 달리는 선수는 아시아에서 찾기어렵다.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에 처음 단거리金메달을 안겨준 張在根(20·성균관대3학년)은 1백m에서말레이지아의 라부앙·피트에게 0·03초차로 金메달을 빼앗긴후 2백m예선을 21초18로 여유있게 통과했으며 준결승서 20초96의 가장좋은 기록을보여우승을 확신하고 있었다.

2백m결승서 세운 20초89의 기록은 74년 태국의 탄환·라타나폴의 아시안·게임최고기록 21초09를 0·2초 앞당기는 대회신기록이며 徐末九의 한국최고기록 20초91을 0·02초단축하는 한국신기록이다.

스타트가 다소느린 張在根은 1백m지점을 통과하

### '88올림픽 땐 더욱 잘 뛰겠다'

며 풀·스피드에올라 마지막50m를 번개처럼달려 아시아최고의 스프린터가 되었다.

金浦공항을 떠날때 컨디션이 좋지않아 『함께 가는 徐末九형 기록만큼만 뛰었으면 좋겠다』던 張在根은 이날 승리후 『모든 분들의 기대에 보답하게돼기쁘다. 86년아시안·게임, 88년올림픽을향해 더열심히 뛰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아시아최고기록(20초86)을 가진 일본의 도요다,한국 단거리의 에이스였던 徐末九가 26세의나이로 퇴조를 보이는 가운데 스타덤에 오른 張在根의 앞날은 더한층 밝다.

80년 光州 사레지오高를 졸업할 무렵 비로소 단거리선수로서 빛을 보기 시작, 81년 멕시코 세계주니어 육상대회서 남자1·2백m를 석권, 徐末九를 대신해 한국단거리의 새로운 등불로 등장했다.

큰 체격에 비해 작은 얼굴, 살짝 볶은 장발, 섬세한 손가락으로 기타줄을퉁기며 뽑아내는 노래솜씨는 프로급이어서 학교축제때의 명성이 자자하다.

光州태생으로 張洪三씨(49·상업)의 3남중 장남이다. 【方錫帥기자】

# 北韓、심판매수기도

## 태국新聞들、大書特筆

【방콕=聯】泰國신문들은1일하오 『북한임원들이 태국의 축구심판 비지트씨를 쿠웨이트―북한전에 앞서 매수를기도했다』고 1면과체육면 머릿기사로 일제히보도했다.

태국축구협회부회장 피시트·엔가름피나치씨는『북한임원들이 나에게도 접근, 비지트주심에게 경기를 유리하게 진행시켜주도록 설득해주길 원했으나 비지트씨와 내가이를 모두 거절했다』고말했다고 방콕·월드는 보도했다.

이신문은 뉴델리발 기사에서 북한임원들이 對쿠웨이트전이 끝나갈무렵, 태국올림픽위원회 다후크·합자드씨등간부들 앞에서 비지트주심을죽이겠다고 위협했다고 말했다.

한편 아누 태국축구협회부회장은 『이번사건의 심각성에 비추어 이달말 방콕에서열리는 아시아청소년 축구선수권대회최종라운드를 주최하겠다는 당초의 제의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아누부회장은 『북한이 끼여있기때문에 이청소년축구대회개최를거부한다』고밝혔다.

벨라판아시아축구연맹(AFC)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보아온것중 최악의 사건』이며『앞으로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않도록 엄벌에 처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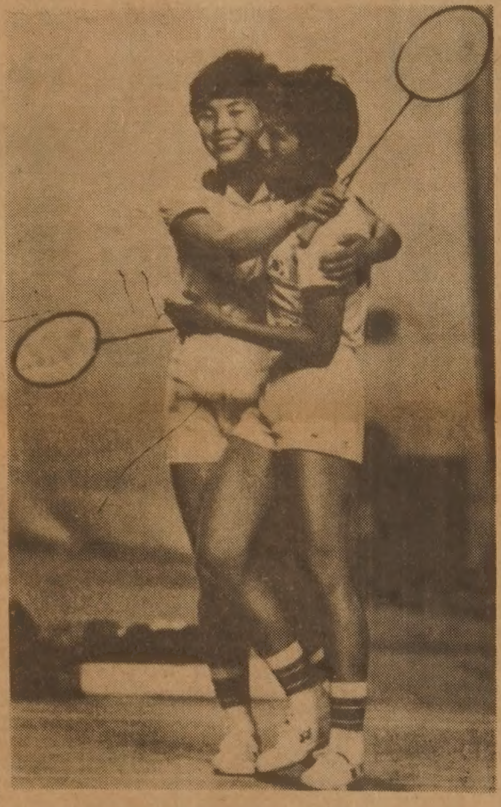
### 加紙도 크게보도

【오타와=聯】캐나다 유일의 전국일간지인 글로브·앤드·메일은 1일 뉴델리 아시안게임 축구준결승전에서 심판을 집단폭행한 북한선수및 응원단의 난동사건을 1면과 스포츠면에 크게 보도했다.

### 北韓출전 보이코트 亞洲大會 축구심판

【뉴델리2日AP聯=聯】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축구심판들은 2일 만약 북한팀의 3·4위 결정전 출전이 허용될경우 경기를 보이코트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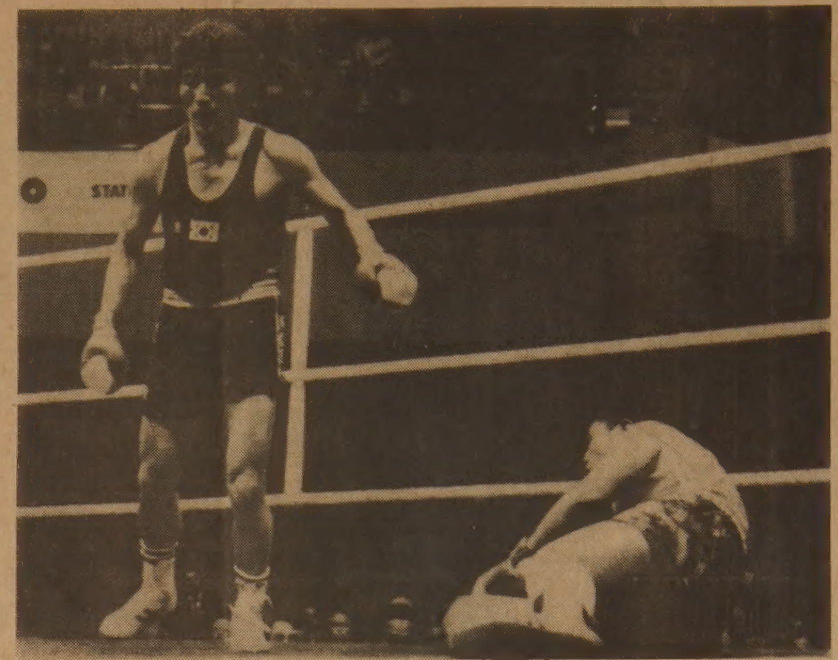
아시아축구연맹(AFC)의 페르나토·알바레즈 심판위원장은 『누구든 북한경기의 심판을 보게될경우 그심판은 징계당할것』이라고 언명했다.



◇日本을 물리친 기쁨의 포옹 배드민턴 여자복식 준결승전에서 한국의 金練子㊧·柳尙希조가 日本을 2―0으로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 기쁨의 포옹을 하고있다. 【뉴델리2日 聯=聯】

# 복싱3體級 金놓고 南北대결

## 12체급서 9명 決勝戰진출



◇北韓누른 強펀치 라이트헤비급 남북대결서 한국의 洪起鎬가 북한의 이운영을 일방적으로 공격, 2차례의 다운을 빼앗고 5―0의 심판전원일치 승리를 거두었다. 【뉴델리 신문공동 취재단 聯=聯】

# 金목표초과、이미 19개확보

## 오늘 모든 競技끝내고 내일 폐막식

제9회 아시안게임 14일째

【뉴델리=신문공동취재단】제9회 아시안게임은 3일 복싱, 농구, 배구, 축구, 배드민턴등 5개종목 결승을 끝으로 21개종목에 걸친 경기를 완료, 폐회식(4일)만을 남겨놓게 된다. 2일 현재 86년 제10회 아시안게임 개최국인 한국은 배드민턴 여자복식에서 黃善愛·姜幸淑조, 金練子·柳尙希조가 우승을 노리던 중공과 일본조를 격파하고 결승에 진출, 金·銀메달을 확보함으로써 역대 아시안게임 출전사상 가장많은 19개의金메달로 종합3위를 굳혀 놓았다.

한국은 3일밤 복싱9개체급 결승과 남·녀농구에서 金추가를 노리고있다.

확실시되는 기대에부푼 복싱에서는 許永模(라이트 플라이급)、文成吉(밴텀급)、朴基哲(페더급)、權鉉珪(라이트급)、金東吉(라이트 웰터급)、鄭鎔範(웰터급)、李海正(라이트 미들급)、李南儀(미들급)、洪起鎬(라이트 헤비급)등9명이 무더기로 金메달을 노리고있다.

朴基哲은 여여식과, 權鉉珪는 정조웅과, 鄭鎔範은 유범화와 각각 결승전서 남북한리대결을 벌이게 되었다.

남자농구팀은 전대회우승팀 중공과 3일밤 金메달을 걸고 결승리그 최종전을 벌이게된다. 남자농구팀은 2일낮 결승리그6차전에서 말레이지아를 완파하고 중공과 함께 6연승을 기록했다.

레슬링 74㎏급 결승전에서 高鎭源은 이란의 후세인·모헤비에게 판정패, 銀메달에 그쳤다.

이로써 레슬링은 금메달을 1개도 획득하지못한채 전경기를 끝냈다.

**복싱**

▲웰터급준결승
鄭鎔範(한국) 판정 체판다(인도)
유범화(북한) 판정 주이코(필리핀)
▲동라이트미들
李海正(한국) RSC 모하마드(파키스탄)
인드리스(시리아) RSC 부를크·싱(인도)
▲동미들
李南儀(한국) KO 알라베(쿠웨이트)
푸네다(인도) KO 아메드(파키스탄)
▲동라이트헤비급
洪起鎬(한국) 판정 이운영(북한)
싱(인도) 판정 칸(파키스탄)
▲동헤비급
싱(인도) 판정 蘇培元(한국)
살만(이란) 판정 치킨고리(몽고)
▲동슈퍼헤비급
마무드(파키스탄) 판정 슈마이스(쿠웨이트)
조봉길(북한) 판정 金鉉平(한국)

# 레슬링 高鎭源 아깝게銀

# 男女배구 모두日에 참패

**배드민턴**

중공세에 눌려있던 배드민턴에서 한국은 뜻밖에 여자복식金·銀메달의 큰 수확을 거두었다. 시드1번의 黃善愛·姜幸淑조는 1번의 우승후보 우디시·리빙조(중공)를17―16, 15―7로 격파했으며, 시드를 배정받지 못한 金練子·柳尙希조도 2번시드의 도쿠다·요네쿠라조(일본)를 15―12, 15―8로 물리쳤다.

한국은 라켓을 사용한 구기복식에서 의외로 강세를 보여 테니스 남·녀·혼합복식에 이어 배드민턴여자복식을 제패했다.

▲여자복식준결승
黃善愛·姜幸淑(한국) 2(15―7 17―16)0 우디시·리남(중공)
金練子·柳尙希(한국) 2(15―8 15―12)0 도쿠다·요네쿠라(일본)
▲남자단식
첸·창지(중공) 2(15―2 18―13)0 崔秉學(한국)
▲여자단식
金練子(한국) 2(11―2 11―2)0 파즈린(인도네시아)
▲동남자복식
간드·사더(인도) 2(15―10 15―9)0 金炳植·李得春(한국)
朴桂奉·李恩求(한국) 2(15―2 15―17 15―5)1 제니아·하세가(일본)

**레스링**

▲52㎏급 ①아사쿠라(일본) ②토바키(이란) ③金鍾奎(한국)
▲62㎏급 ①가네꼬(일본) ②李正根(한국) ③아메드(이란)

**사격**

한국은 자유권총단체전서 부진, 5위를 차지했다. 북한의 소길만은 5백67점으로금메달을 땄으며 단체전서도2천2백17점으로 금메달을 획득, 지금까지 북한은 사격에서 모두 5개의 금메달을 얻었다.

▲자유권총단체 ①북한 2천2백17 ②중공 2천2백11 ③일본 2천1백95 ⑤한국2천1백28
▲동개인 ①소길만(북한) 5백67 ②시게도시(일본) 5백65 ③왕이푸(중공) 5백59

**육상**

▲여자2백m=①히로미·이소자끼(일본) 24초22 ②우사(인도) 24초32 ③牟[illegible]姬(한국) 24초49
▲남자2백m=①張在根(한국) 20초89 ②도시오·도요다(일본) 21초13 ③피트(말레이지아) 21초25

**테니스**

▲남복식결승
金春浩·이우룡(한국) 2(6―3 7―5)0 全乘大·宋東燿(한국)
▲남자단식결승
타릭(인도네시아) 2(6―3 6―7 6―3)1 金春浩(한국)

**하키**

이번 아시아경기대회 최대빅게임중 하나인 남자하키에서는 파키스탄이 라이벌인 홈팀인도에 7―1로 대승,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날 하키결승전을 앞두고 시대부분의 뉴델리 상가가 철시했다.

▲남자하키결승전
파키스탄 7(3―1 4―0)1 인도

### 한국3위 보도 北京放送

제9회 아시안게임 폐막을 앞두고 日本과 치열한 선두다툼을 벌이고있는 中共은 1일 한국팀의 성적에 언급, 한국은 印度를 누르고 3位를 굳건히 지키고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北傀는 2일 현재까지도 한국팀의 전적등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한채 북한선수들의 메달획득 소식만 金日成父子 우상화선전과 결부시켜 되풀이 보도하고 있다. 【聯】

### 선수단, 6일 귀국

【뉴델리=신문공동취재단】제9회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한국선수단은 6일 하오1시30분 KAL전세기로 귀국한다.

◇메달중간집계 <2일현재>

| | 金 | 銀 | 銅 |
|---|---|---|---|
| ①중공 | 54 | 45 | 33 |
| ②일본 | 53 | 48 | 40 |
| ③한국 | 19 | 25 | 32 |
| ④북한 | 11 | 17 | 19 |
| ⑤인도 | 11 | 13 | 18 |
| ⑥몽고 | 3 | 2 | 1 |
| ⑦파키스탄 | 3 | 1 | 5 |
| ⑧이란 | 2 | 4 | 3 |
| ⑨필리핀 | 2 | 2 | 9 |
| ⑩印尼 | 2 | 2 | 7 |
| ⑪쿠웨이트 | 1 | 2 | 3 |
| ⑫말聯 | 1 | 0 | 3 |
| ⑬싱가포르 | 1 | 0 | 2 |
| ⑭시리아 | 1 | 0 | 1 |
| ⑮태국 | 0 | 2 | 3 |
| ⑯레바논 | 0 | 1 | 0 |
| ⑯아프가니 | 0 | 1 | 0 |
| ⑱이라크 | 0 | 0 | 4 |
| ⑲홍콩 | 0 | 0 | 1 |
| ⑲바레인 | 0 | 0 | 1 |
| ⑲베트남 | 0 | 0 |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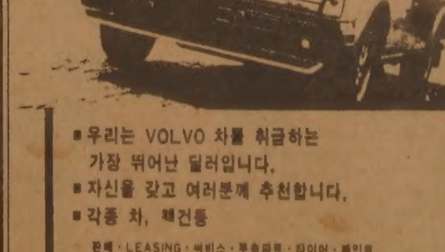

무인신문판매대 불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3일 한국경기 (한국시간)

◆남자농구 한국―중공 (18시30분)
◆남자배구 한국―인도 (12시30분)
◆복싱 결승전 (19시30분부터)
▲L·플라이 許永模(한국)―카바나스(필리핀)
▲플라이 테라포론(태국)―바바트알리(파키스탄)
▲밴텀 文成吉(한국)―폼스리(태국)
▲페더 朴基哲( 〃 )―여연식(북한)
▲라이트 權鉉珪( 〃 )―정조웅(북한)
▲L·웰터 金東吉( 〃 )―움폰마하로(태국)
▲웰터 鄭鎔範( 〃 )―유범화(북한)
▲L·미들 李海正( 〃 )―아드리스(시리아)
▲미들 李南儀( 〃 )―부네라(인도)
▲L·헤비 洪起鎬( 〃 )―기도와르·싱(인도)
▲헤비 살만(이란)―카우르싱(인도)
▲슈퍼헤비 조봉길(북한)―마무드(파키스탄)
◆배드민턴 여자단식 (金練子: 준결승서이길경우)
여자복식 결승(黃善愛·姜幸淑―金練子·柳尙希)
남자복식(朴柱奉·李恩求: 준결승이길경우)(17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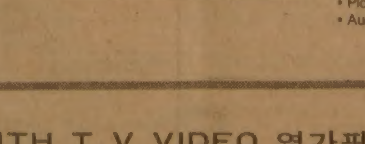

S.T.S Motors

이제는
VOLVO를
타실 때가 되었읍니다.



▪우리는 VOLVO 차를 취급하는 가장 뛰어난 딜러입니다.
▪자신을 갖고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각종 차, 해건틍
판매·LEASING·써비스·부속파트·타이어·페인트
S.T.S.MOTORS
전화: 751-7664 로렌스·EAST OF WARDEN
2116 LAWRENCE AVE.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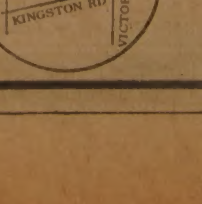
ZENITH HI-TECH
BETA VIDEO RECORDER
SPECIAL OFFER!



VR9760W • Clear Special Effects Playback
• Dependable electronic tuning with 14-position channel selection
• Programmable 14-day, 4-event auto record timer
• Remote Video Action Control with Slow Motion
• Superb Beta picture quality with CLEAR playback
• Picture Speed Search in forward and reverse
• Audio Dub and more!

● ZENITH T.V VIDEO 염가판매
● T.V VIDEO STEREO & RADIO 수리합니다

Town and Country
882 KINGSTON ROAD ☎691-2000
SALES & SERVICE 김광래




Chameleon Sunglass Boutique
<각종 고급 썬그라스 대매출>
각종 유명 메이커제품을 구비하고 한인교포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Paola Belle ·Zeiss ·Porsche ·Ted Lapidus ·Yves St.Laurent ·Christopher Magnus ·Play boy
검안 해 줍니다. Prescription Also Available 15% Discount Korean Only

·Christian Dior ·Ferrari ·Nina Ricci ·Roger Gallet ·Emmanuelle Khahn ·Pierre Cardin
광고쿠폰을 가져오시면 15% 할인합니다. Bring This Ad for 15% Discount Korean Only

St. Charles Promenade(Tel: 920-4062)
(One Block South of Bloor St.)
730 Yonge St.(블루어×영 남쪽)

★카텐을 신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씰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 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1주에 $15로 귀하가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수 있읍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 식 당

아리랑식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구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리아하우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국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럽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울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그라나다(GRANADA)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사시미·생선초밥·덴뿌라 등…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갈비는 맛좋고 기름이 적은 삼복식품으로…,
★겨울김장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맛이 최고인 삼복김치로 대용하세요.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발식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서울식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 실 내 장 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 양 장 점

샘터의 상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 여 행 사

신세계여행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일여행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미여행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2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시간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696

Professional Instruction 운전지도
온타리오 안전기구와 정부보증
전화 : 626-5715 Mr. McKenzie

## 의 류 수 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Professional Inventory ◉모든 Store 인수, 인계 일절 처리.
Inventory Service of Canada
전화 : 665-8300 Nick.

##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회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한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완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 타 자 기

공병우 한영타자기 캐나다 총대리점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 있음.
전화 : 245-0995 김영수

##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이경복회계사 C.G.A.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533-2361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 구 인

한식·일식·서양식 겸한 요리사 구함.
전화: 496－2196(6시 이후 연락바람)

경험있는 풀타임 여자캐쉬어 구함.
1666 Queen St. W. Tor.
전화 : 532－6143, 532－9638

Oakville Convenience Store 매니저 구함.
현재 주매상: $8,000이며 스타은 캐쉬로 원함.
전화: 633－5231(Mrs. 윤), 669－1518(Mr. 유)

좋은 사람 구함. 주유소(GAIN) 경험자는 우대함.
Full Time 또는 주말 Part Time
877 Dundas St.W(Bathurst 서쪽 300m)

경험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이즈링톤 × 알비온)
전화 : 743－2398

입주하셔서 애기봐 주실분 구합니다.
2살반, 3살반
전화 : 247－0643(오후 8시이후)

Gas Attendent 구함.
미시사가 지역
전화 : 487－2349, 924－0227

웨이트레스와 Kitchen Helper구함. 5304 Yonge St.
(South of Finch) 휜치지하철서 10분거리
전화 : 221－1621, 826－7676 Koto Japanese Rest.

절호의 챤스. 급성장하고 있는 스타 중개업자가
경험있는 회계사나 또는 Training을
받으실 분 구합니다.
이력서를 보내세요: Goulding, Ross Turner Ltd.
283 Spadina Ave. Suite 208
Toronto, Ont. M5T 2E3

주말에 도넛숍에서 밤일하실분 구함.
금·토요일밤: 밤11시～아침7시.
전화 : 977－0303

여자 룸 메이트 구함.
Bathurst & Finch
전화 : 633－0127(6시이후)

Koto일본음식점 Kitchen Helper 구함.(휜치지하철서 10분거리)
인터뷰 : 11월27일(토) 12월4일(토) 오후2시～5시.
5304 Yonge St. 전화 : 221－1621, 826－7676

1개월간 목공일 하실분(기술 필요치 안음)
AURORA 지역.
전화: 1－727－1021(낮12시～1시 연락바람) Mr. 조

미시사가 거주 젊은 여자분 구함. 1983년1월4일부터 7시부터 8시간. 23 Helene St. Missi Port Credit 역전. Century Burgers
희망자 방문요 5시 이후

개스 스테이션 풀타임 매니저 구함.
(자동차 유류판매 ONLY)
전화 : 1－852－7561

2층에 2 Bed－room달린 식당임(Chair 24개, Stool 9개)
지하실및 화장실 2개. 맡아서 운영하실분
전화 : 691－6768 Mr. 김

담배 안피우며 정결한 여자 룸메이트 구함.
(베다스트와 에그링톤)
전화 : 782－9777

## 기 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Mrs. Adroe) 636 Vaughan Rd. #1(at Oakwood St.)

##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 한국기관·해외지사

| | |
|---|---|
| 총영사관 | 598－4608 |
| 무역진흥공사 | 977－8784 |
| 외환은행 | 364－2890 |
| 외환은행 Bloor지점 | 533－8593 |
| 한일은행 | 865－0456 |
| 조흥은행 | 363－3448 |
| KAL | 862－8250 |
| 금호실업(박수웅) | 224－2491 |

## 교 민 단 체

| | |
|---|---|
| 한인회 | 755－9288 |
| 노년회 | 755－8079 |
| 실업인협회 | 533－7923 |
| Y.M.C.A. | 536－1166 |
| 코리아타운번영회 | 532－2727 |
| 동우회 | 261－2917 |
| 호남향우회 | 651－8835 |
| 캐나다체육회 | 248－8846 |
| 한인신용조합 | 533－9387 |
| 천주교신용조합 | 363－0097 |
| 한인태권도협회 | 630－3095 |
| 상공인협회 | 421－9144 |
|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 533－2361 |
| '88 올림픽후원회 | 623－3674 |
| 숭공문화협회 | 444－3658 |

## 개 인 지 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심껏 지도, 초보자 환영, DIXON & KIPLING
전화: 243－7752(749－1316(낮·Answering Service) Jennifer Hong

양장, 재단 재봉 개인지도(휜치 & 베다스트)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재봉은 하지만 재단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 매 매

가정용 스토브(오븐) 팝니다.
전화 : 749－2297 Mr. 조(오후6시 이후)

77년도 Chev. Station Wagon 8기통
65,000마일 $2,000 (성능좋음)
전화 : 288－1378 강

Hasty Market Convenience스토아 프렌차이스 매매
년매상 : 약 $1,000,000.
전화: (416)922－7849 Ken or Gord.

해밀턴 큰길에 있는 플라자내의 경쟁없는
그로서리 스토어. 주매상 5천보장.
렌트 700불. 7 년간+10년옵션.
Asking $52,000+스탁. 좋은 조건으로 양도함.
8Door Walking Cooler, New Equipment.
문의처 : 1－388－4825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올림픽스타디움 옆에 위치하고 관광객이 많이오는 좋은 위치. 배달이 없으며 두사람이 쉽게 운영할수 있음.
Beer, Wine 라이선스 있음.
시간: 아침9시～저녁11시. 주매상: $8,000
몬트리얼 지역: (514)256－8451

버라이어티 스토어 급매
주매상 4,000불 이상. 월세가 확정된 7년 리스.
전화 : 421－1014 Mrs. 안

건강이 나쁜 관계로 급히 우체국 달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시민권자나 이민자라야 함. 주 Net $550(경비제외하고)
◉아스킹: $15,000+스탁 전화 : 691－5297 Mr. Gilbert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 $3,500
전화 : 255－7597

밀크스토아 매매.
주매상 $3,500～4,000
비데오 머신에서 월 $800～900
5887 Bathurst St.(N. of Finch)
직접 내방 바람. 빌딩도 살 수 있음.

드라이 크리닝 매매
★ 기계있음.
전화: 923－2785(Anytime)

성업중인 그로서리스토아 급매. 주매상: $6,500～$7,000
아스킹: $69,000+스탁. 렌트: $650
오타와지역. 전화 : (613)－238－38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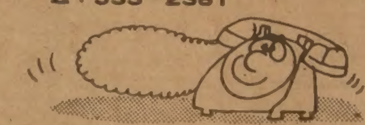
플라자내에 있는 10개 스토아 매매. 1.2 Acres.
둘레 주변에 파킹장 있음. 새롭고 좋은 주택가.
1년 Gross 인캄 $64,000. 아스킹 $500,000.
1st 몰개지 $126,000. 13%. 다운 $100,000
DORIS BURDA 763－5555
R. CHOLKAM & CO. LTD.

Drycleaner's Depot 매매.
◉스카보로 지역. ◉좋은 리스.
전화 : 751－7615

빌딩달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좋은위치·경쟁없음
Set up한지 2개월. 주매상: $3,700+비데오(월 500수입)
증가중에 있음 ★46 Annette St. TOR.

## 한국일보 광고문의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개인, 소구룹, 단체.
문의 : 742－4208 김유수 (출장·주말지도)

##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현재 변호사 사무실 2층 렌트합니다.
850 Sq. Ft. 484 Bloor St.W.
전화 : 638－0782

강찬영변호사 사무실내에 600 Sq.ft.
사무실 렌트 합니다.
410 Dundas St. E. 전화 : 537－3171

4 Bed Rm. House전체를 세놓고자 함(Brampton지역)
2Bath Rm. Family Rm. Fire Place차고등,학교와
Shopping Plaza근처에 있음. 전화: 593－8943

콘도미니움아파트 렌트. 3Bed Rm.(Jane & Eglinton지역)
◉월$700(다 포함됨) 실내수영장·사우나·체육관 있음
전화: 535－8801

##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퍼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겐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 도 서 판 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138 0628 (R) Mrs.Oh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베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베이크셔×토알육) 전화: 255－4745

##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 생일, 파티케익등 전문(배달가능)
534 St. Clair Ave. W. 653－1149 Mrs. 백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얄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일체.)
(B)449－8644～5 (R)286－1548
★이헌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캐쉬 레지스터 린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킴스 카메라.
각종사진 현상, 증명사진, 회갑·결혼사진등.
619 Bloor St. W. 534－1085

##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 생 선

K & R Sea Food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대일 오디오 비데오
T.V., 전축 스테레오, 각종 전자제품
전화 : 270－0679, 279－3174 임문호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